

# 교과서연구

제 44 호

2005. 4

차 례

- 발행인 / 한병천
- 기획편집위원  
박삼서, 노희방, 강환동,  
윤광원, 이춘식

## 권두언

광복 60주년, 앞으로 교과서를 위해서 할 일/문용린 .....4

## 특별 기획

광복 60주년, ‘교과서 제도 변천’ 회고와 전망

국가 수준 교육과정/함수곤 .....10

교과서 편수 행정/김만곤 .....17

교과용 도서 편찬 제도/노희방 .....26

교과용 도서 발행과 공급/정민택 .....32

교과서 외적 체제와 디자인/현영호 .....39

교과서 연구/허 강 .....46

## 연재

미국 텍사스 주의 교과서 제도/이춘식 .....53

## 편수 행정의 발자취

초등 수학 교과서 연구·개발의 실제/김재광 .....58

농업 전문 교과서 편찬 업무의 회고/전진용 .....63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탐 방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16) - 이해영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이사장) .....68

## 자 료

교과서 연구 단체 / 게오르그-엑케르트 국제 교과서 연구소 .....73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75

## 연구 보고서 소개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76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수립 방안 연구 .....76

초·중등 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76

교과서 게재 시각 자료의 미적 구성 방안 연구 .....77

한국 교과서의 현상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77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77

---

● 연구재단 소식 .....78

---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79

---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80

---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81

---

\* 표지 글씨 : 신두영

\* 표지 디자인 : 대한교과서 (주) 편집팀



# 광복 60주년, 앞으로 교과서를 위해서 할 일

■ 글 / 문용린 (서울대학교 교수, 전 교육부 장관)

## 1. 외국 원조로 시작한 가난한 교과서 역사

일제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지 어언 60년에 이르렀다. 이는 곧 우리 나름대로의 현대적 의미의 교육을 시작한 지 60년에 이르고 있다는 뜻도 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각급 교육 기관에서 일하던 일본인들이 모두 철수한다. 따라서, 연합군이 한국에 진주할 때까지 모든 학교는 8월 17일부터 임시 휴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휴교 기간은 길지 않아서 한 달이 조금 지난 9월 24일에 다시 개교를 하게 된다.

이 휴교 시기에 가장 바쁘게 움직인 것이 조선어학회였다. 국어 교재의 편찬이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8·15 광복을 지나고 채 보름도 되지 않아서 국어 교과서 편찬이 시작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4개월 만인 12월 16일에 대한민국 최초의 교과서라고 할 초·중등용 국어 교과서(‘한글 첫걸음’, ‘한글 초등 교본’)가 발간되어 배부되기에 이른다.

1946년 9월 1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제정되기에 이르지만, 과목별 교과용 도서의 발간은 아직 엄두도 못 내게 된다. 1950년 4월 29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이 공포(대통령령 제 337 호)되어 국정 교과서 발간이 기획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같은 날에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이 공포(대통령령 제 336 호)되어 국정을 제외한 중등 학교의 교과서 편찬 계획이 수립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교육은 다시 그 해 말까지 긴 휴교에

원래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후진적인 나라의 교육일수록 교과서 의존도가 높다.  
교과서 이외의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들어간다. 그러나 1951년 1월부터 각급 학교는 피난지 학교 형태로 개학을 하게 되어 교과서의 필요는 전시 중에도 크게 대두된다. 이런 필요에 부응하여 1952년 UN 한국재건단이 교과서 용지 및 교과서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이 지원으로 적어도 초등 학교 수준에서의 국정 교과서 공급은 안정을 회복하게 된다.

## 2.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

이렇게 한국의 교과서는 UN의 원조에 의하여 시작된 가난한 역사를 가져서 인지, 이후 내내 궁핍을 면하지 못한다.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라 살림이 많이 나아졌어도 교과서는 여전히 50년대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 국정 교과서의 경우, 그 제작비는 검인정 교과서 대비 약 1/10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이러한 저투자는 곧바로 교과서의 질로 연결된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보다는 검정 교과서의 질이 한결 높고, 같은 검정 교과서 중에서도, 출판사 간에 경쟁이 심한 종류일수록 그 질 또한 높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교과서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거세졌다.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할 교과서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교과서 제작(발행)의 주체에 대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를 취한다. 중앙 집권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대다수의 나라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지방화·분권화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적어도 교과서만이라도 국가 독점에서 완화시켜 검인정 쪽으로 옮겨 가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자유 발행 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국정과 검인정이 부분적으로 혼재하고 있는 형태이다. 초등은 주로 국정의 형태이지만, 중등은 소수의 국정과 다수의 검인정으로 발행되고 있다.

둘째는 교과서 공급 체제에 관한 것이다. 국정 교과서의 경우, 원고의 제작

은 국가 책임하에 작성이 되어도, 그것의 인쇄와 공급은 국가가 직접 하기 어렵다.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학기 초에 그 업무가 집중되는 까닭이다. 물론, 민간의 인쇄 및 공급 업무 능력이 모자랐던 1950~70년 시기에는 국가가 직접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이 얼마든지 그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인쇄와 공급 체제를 국가 독점이 아닌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미 국정 교과서의 인쇄와 공급은 독점 체제에서 상당한 부분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물론, 교과서 공급과 관련해서 국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검인정의 경우도 자유로운 판매 경쟁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과서가 많이 팔리는’ 건전한 교과서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건전한 교과서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교과서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원래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후진적인 나라의 교육일수록 교과서 의존도가 높다. 교과서 이외의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에 교과서 이외에 일반 출판사가 경쟁적으로 상업적 이득을 위해서 만드는 수십 종의 참고서가 있다.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전과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교과서일 뿐, 교과서와는 다른 교육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에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매우 풍부하게 만들어져 제공된다. 따라서, 학생들과 교사는 학습 장면과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기호와 편의에 따라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운다. 이제 우리도 일관되게 ‘종이 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교과서를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ICT 기술 보급이 보편화되고,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생산이 강조되는 요즈음의 시대에 학생용 학습 자료는 하루속히 전통적인 ‘종이 책’ 교과서의 모습을 탈피하여야 한다.

### 3.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과제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과제 다음에 올 더 큰 과제가 있다. 이른바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는 문제이다. 앞서 지적한 세 가지는 교과서의 질에 대한 숙제라기보다는 제작·관리의 형식적 효율성과 적합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른바 교과서의 제작과 공급의 행정 체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정 체제의 개선이 곧 정확하고,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쉬워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과서의 제작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의 질은 교과서의 제작과 공급의 행정 체제

**교과서 집필자는 교과서에 적합한 글을 쓰기 위한 능력을  
별도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아무나 소설을 쓸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치려는 내용에 아무리 정통하다고  
하여도 아무나 교과서를 쓸 수가 없다.**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부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서구 유럽 선진국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제작과 공급의 행정 체제 개선의 수준을 넘어서서 ‘질 좋은 교과서(quality textbook)’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관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관심을 집중적으로 보이는 국제적인 교과서 연구 학술 단체가 있는데, 국제교과서/교육미디어연구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on Textbooks and Educational Media : IARTEM)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 교과서 국제 학회가 작년 시드니 대학에서 열렸는데, 그 주제가 바로 ‘질 좋은 교과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학회에 초청을 받아, 필자는 우리 나라 교과서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알려 준 것보다는 배우고 온 것이 훨씬 많았다.

질 좋은 교과서란 ‘교사가 가르치기 쉽고, 학생이 배우기 쉬우며, 그래서 학습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과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질 좋은 교과서를 위한 학회의 시급한 연구 사업의 영역으로 두 가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과서 집필자를 위한 문장 훈련 교육 프로그램’(Program for non-fiction writing ability)의 개설이며, 다른 하나는 ‘교과서/교육 자료의 수업 활용 실태 조사’(Studies on the classroom use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앞의 교과서 문장 훈련 과제는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교과서에 적합한 글쓰기 방법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확고했다. 소설가에게 소설이 그의 글쓰기 작품이듯이, 교과서는 집필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글쓰기 작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자는 교과서에 적합한 글을 쓰기 위한 능력을 별도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아무나 소설을 쓸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치려는 내용에 아무리 정통하다고 하여도 아무나 교과서를 쓸 수가 없다. 예컨대, 아인슈타인이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일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그가 최고의 물리학 교과서를 쓸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리에 관한 지식의 수준이 물리 교과서 집필의 수준은 아니기

**교과서의 집필진과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팀 간의  
의사 소통이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 의사 소통은 수업 관찰을 통한 현장 연구의 결과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이다.

물론, 교과 내용에 정통하면서, 동시에 교과서 집필의 기술이 뛰어나면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자연 상태에서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과목 전문가이면서 교과서 집필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과서용 글쓰기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소정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에게 ‘교과서 집필 자격증’(licence for non-fiction writing)까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개설을 위한 후속 회의가 금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 근처에서 열렸다. 이에 깊은 흥미를 느낀 필자도 이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유럽 인을 포함한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 집필 교육 훈련 과정’이 머지않아 유럽의 어느 대학에 한 프로그램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먼 나라의 일이기만 할까? 우리 나라에서는 누가 교과서를 쓰는가? 내용 전문가면 누구나 교과서 집필의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 집필 또는 교과서 글쓰기의 전문성을 도통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인 셈이다. 교과서 집필을 ‘non-fiction writing’의 한 고유한 전문 영역으로 간주하고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우리가 보는 서유럽식의 ‘질 좋은 교과서’가 탄생될 수 있었던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두 번째의 교과서 수업 활용 실태 조사 과제는 이미 호주 등지에서는 꽤 많이 연구가 진척된 것들로서, 교과서가 실제 수업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교수 심리와 학습 심리학의 입장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 이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가? 교사나 학생들은 이 교과서의 이용에 어떤 편리와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수업 목표 달성에 이 교과서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등등을 실제로 조사하여 평가해 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시드니 대학은 호주의 ‘교과서제작자협회’(The 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 : APA)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TREAT(Teaching Resources and Textbook Research)라는 교과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오늘날과 같은 ICT 학급 상황에서 교과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2. 교과서는 학생들의 숙제하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3. 교사들은 수업 중에 교과서와 기타 수업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4. 교사들은 복사 유인물을 어떻게 구득해서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교과서와 관련을 맺고 있는가?
5. 교사들은 인터넷과 교과서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사용하고 있는가?

시드니 대학은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교과서제작협회에 제출하고, 이 협회는 이 자료를 이용해서 교과서 집필진과 수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과서 제작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노력이 어디 호주에만 필요한 것이겠는가?

교과서의 집필진과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팀 간의 의사 소통이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 의사 소통은 수업 관찰을 통한 현장 연구의 결과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교과서 현장 활용 실태 연구가 광범위하게, 철저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질 좋은 교과서’에 대한 욕심을 우리 나라 교과서 제작사들이 마음껏 부려 보시기를 기대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

■ 글 / 함수곤(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한 마디로 표현하여 초·중등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다. 또, 국민성 형성의 청사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기초·공통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인간상의 형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할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보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교육 운영을 관리하는 초·중등 학교 교육 내용과 방법의 국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그 동안 어떻게 변천해 왔으며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변천

### 1. 제 1차부터 제 5차 교육과정기까지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사에서 볼 때 제 1차부터 제 5차 교육과정까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유일 체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초·중등 교육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등 세 곳의 당사자

중에서 오직 교육부에서만 유일하게 ‘교육과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제 1차에서 제 5차 교육과정까지는 계속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학생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각 학교는 물론이고, 그 학교의 교원과 시설, 재정 등의 지원과 장학을 담당하고 있던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에 관한 선택과 결정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제 1차부터 제 5차까지의 우리 교육의 기본 운영 체제였다고 할 수 있었다.

제 1차에서 제 5차 교육과정기까지 우리나라는 이처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도를 소홀히 다루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우리의 학교에서는 설계도가 없이 무엇에 의거하여 어떻게 교육을 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그 시대에 우리 학교 교육에서 설계도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다른 아닌 ‘교과서’였던 것이다. 즉, 완벽한 ‘교과서

**제 1 차에서 제 5 차 교육과정기까지의 학교 교육은  
완벽하게 교과서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가 각 학교에 군림하여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절대적인 지배자 노릇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중심 학교 교육 체제'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여 교과서(로) 교육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교육한 것이다. 즉,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것이 아니고 '교과서'를 사용·전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는 도저히 각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가 될 수 없는 하나의 인쇄된 교육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천할 때 선택·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러한 인쇄 교육 자료가 그 동안 각 학교에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 노릇을 대신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교육과정 = 교과서'의 등식이 아무 의심 없이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교육과정 = 교과서' 등식의 통용은 '설계도가 없는 학교 교육'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 체제 속에서의 '수업'이란 '교과서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주입 암기시켰다가 필요한 때에 그것을 잘 재생할 수 있게 하는 작업' 바로 그것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제 속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육자가 교육의 자료인 교과서의 전도사가 되어 버린다. 교과서 중심 교육 체제는 교사가 교육의 설계와 운영에서 교육 전문가

로서 담당하여야 할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교과서 중심 체제에서는 학생에게 교과서를 읽히고, 설명해 주고, 요점을 판서하고, 그것을 필기하게 하고, 교과서와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게 만든 4지 선다형 시험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곧 수업이 되고, 학교 교육의 전부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교과서 지식의 암기 훈련'과 '시험 문제 풀기 연습'을 학교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 기능공과 흡사한 '교과서 지식의 전달부'를 교육의 전문가로 인정해 줄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1 차에서 제 5 차 교육과정기까지의 학교 교육은 완벽하게 교과서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가 각 학교에 군림하여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절대적인 지배자 노릇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 중심 교육 체제 시대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다섯 번이나 큰 개정이 있었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소수 교과서 집필자의 주의를 끄는데 그쳤을 뿐이다.

현장 교원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거의 관심이 없었다. 또, 자신의 교육 실천과 역할 기능이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형식적

이고 선언적인 문서로서 교육 현장과 유리되어 공중에서 떠돌았고, 지상에서는 교과서가 학교 교육의 절대적인 성전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 제 6 차 교육과정기 이후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국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체제가 분권적 교육과정 체제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등 세 당사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 체제가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정립되었다.

이제까지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유일 체제가 교육부(국가 수준 교육과정) - 시·도 교육청(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단위 학교(학교 교육과정)의 수준별 역할 분담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는 교육과정 체제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 변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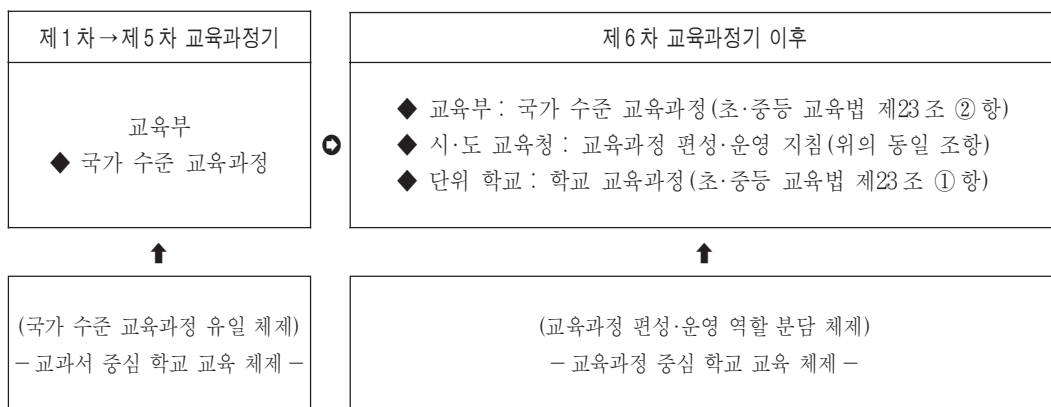
제 6 차 교육과정부터 비로소 교육과정의 선택과 결정에 ① 교육부, ② 시·도 교육청,

③ 단위 학교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학생 교육의 실행 주체인 일선 학교가 직접 편성·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에 의거하여 '95 학년도부터는 각 학교마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처음으로 의무화되었다.

교과서는 이제 더 이상 학교 교육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교과서가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 역할을 수행하며 완전히 교육을 지배했던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학교 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교육 기본 설계도로서 제자리를 잡고 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로) 교육하는 이른바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체제’가 열리게 된 것이다.

제 6 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탄생한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해설서, 각종 교과용 전문 도서, 당해 학교의 실태 조사 자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변천



와 시설 설비, 지역의 자원과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자기 학교의 실정과 자기 학교 학습자의 실태 및 능력에 가장 적합하게 선택·결정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행 교육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곧 그 학교의 교장과 교사가 합의하여 선택·결정한 그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똑같은 교과서가 어느 학교에서나 똑같이 그 학교의 교육과정 노릇을 대신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각 학교마다 개성 있고 다양성 있는 교육을 특색 있게 실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의 역할 분담 체제에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자기 학교에서 실천할 교육에 대한 설계와 기획에 참여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외면하고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학교 문화에 익숙해진 현장 교사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지도 모른다.

그 동안 교과서에 의존하여 마치 봉어빵을 구워 내듯 기계적으로 교과서 지식 전달에 전념하였던 현장 교원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바르게 인식하여 전문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학교의 불비한 교육 여건, 교원의 정원과 전문적 자질, 사무 관리 위주의 학교 문화,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교육 여건 속에서 학교 교육과

정의 편성·운영의 정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Ⅱ.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전망

### 1. 교육과정 행정 강화

초·중등 학교가 교육을 실천할 때 보통 두 가지의 규제가 따른다. 하나는 법령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고, 또 하나는 중앙 또는 지방의 교육 행정 기관이 수시로 생산해 내는 이른바 ‘교육 시책, 중점 사업, 개혁 방안’ 등과 같은 행정 시책 또는 행정 지시이다. 교육과정은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고시 문서로 제시되고, 행정 시책 등은 공문서, 회의, 전화, 전송 등의 수단을 통해서 수시로 학교에 전달된다.

학교 교육은 당연히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하게 준비된 그 학교의 독특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계획적, 조직적, 의도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보다 행정 기관의 교육 시책, 중점 사업, 공문서 등에 더 강한 규제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자생적, 전문적으로 마련되지만 교육 시책은 타율적인 지시와 압력의 성격을 띠고 상부 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된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를 두고 학문적, 사회·문화적, 개인적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교육 시책은 정치, 경제, 사회의 요구·필요나 행정 책임자의 일시적인 관심, 의지, 취향 등을 더 중시한다. 교육과정

**제 6 차 교육과정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국가 수준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세밀한 관여를 가능한 한 완화하는 데**  
**개정의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은 다양성, 창의성, 자발성을 중시하지만 교육 시책은 획일성, 능률성, 강제성을 더 중시한다. 교육과정은 수많은 관련 전문가의 학문적, 장기적인 합의·선택이지만 교육 시책은 소수 정책 담당자의 일방적, 행정적, 유행적, 단기적인 결정이 되기 쉽다.

이처럼 상이한 두 가지의 존재 중 지금까지 지 학교 교육을 강하게 지배하여 온 것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 시책이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기본 설계도보다도 관리층의 지시나 비전문적 간섭에 더 무게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능이 좋고 품질이 높은 자동차의 생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학교 교육의 실천이 교육과정이 아닌 행정기관의 시책이나 공문서 등에 의해 거의 규제되고 조종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교육에 관련된 법령, 제도, 인사, 재정, 환경 등의 외적 여건을 개선해도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외면하였던 교육의 소프트웨어 부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 전문가들의 활동이 현장 지원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 적용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보다 효과적인 것을 개발하고 다시 투입시키는 일 등이 이른바 현장 장학인 것이다. 그 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에서 공통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으로 제시한 소프트웨어(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고시 교육과정)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근거로 각 학교 수준에서 구체적이며 실행적인 수준으로 선택·결정한 소프트웨어(학교 교육과정)가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교육 행정도, 교육 현장도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 전문가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편수, 장학, 평가 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아무리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하드웨어의 정비에 주력해 보았자 교육의 질 관리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먼저 그 부문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 2.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大綱化)

중앙 집권형으로 교육과정의 기준을 결정할 때 그 권력적인 규제 범위와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① 국가 수준에서 일선 교육 현장이나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전혀 선택·결정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미세한 수준까지 세밀하게 규제할 것인가?
- ② 그렇지 않으면 국가 수준에서는 공통적이고, 대강적(大綱的)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결정은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 ③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지역과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제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재량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권한의 적절한 배분과 조절, 조화에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제 1차 교육과정에 서부터 제 5차까지 비교적 ‘세밀한 규제형’을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은 하나의 표준적, 탄력적인 예시 규정이 아니었고 강제적, 획일적인 강행 규정이었다.

이와 같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의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 등의 해결을 위하여 추진된 것이 바로 제 6차 교육과정의 개정이었다. 제 6차 교육과정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국가 수준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세밀한 관여를 가능한 한 완화하는데 개정의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 결과, 과거(제 1차 ~ 제 5차)의 국가 수준에 집중되어 있던 교육과정 결정권이 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각급 기관의 수준별로 상당히 분권화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었다. 그리하여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 수준별(국가, 지역, 학교) 역할 분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에서는 공통적, 대강적 기준만 제시하고, 가능한 한 교육 실천 현장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 선택, 결정할 수 있게 분권화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학습자를 존중하는 교육의 실현으로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 교육의 공급자 중심의 ‘공장형’ 대량 획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아틀리에형’ 인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를 존중하는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평가를 통해서 그들의 개성, 자주성, 창의성, 자기 주도적 학습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교육 현장을 재편성하려는 시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선의 흐름은 세계적인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개혁 동향 속에서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개선의 흐름은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서구 선진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습자의 잠재 가능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다양성과 개성이 풍부한 개방형의 교육과정 형태이다. 또 하나의 흐름은 주로 동



양권과 독재 국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가 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개인의 요구보다 중시하는 획일적 규제형의 폐쇄적인 교육과정 형태이다.

이상의 두 가지 형태의 교육과정은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국들에서도 근래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경향이다.


개성화, 다양화 지향의 개방적인 교육과정 쪽은 공통성과 보편성의 색채를 첨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획일화, 경직화된 폐쇄적인 교육과정 쪽은 개성과 다양성의 색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각기 선회하여 양쪽 모두 기본은 중시하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절충형’으로 지향하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학교 교육과정을 중시해 온 영국은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을 공포하고 이 법에 따라 국가 공통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 ② 연방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경계해 온 미국은 1994년에 미국 교육법(The 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을 공포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2000년까지 성취할 국가 수준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③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도를 고수해 온 프랑스가 교육과정 개선에 지방 자치 단체, 학교,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 ④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해 온 일본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대폭 간략화하는 한편, 선택 과목과 단위 학교의 자율 재량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화, 개성화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2002년 주 5

일제 수업 실시를 전제로 개정된 신 학습지도 요령에 ‘총합적 학습 시간’을 신설하였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과정 개선 동향과 맥락을 같이 하여 그 동안 획일화, 경직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교육과정을 다양화, 지역화, 특성화, 대강화 쪽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1992년, 제 6차 교육과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이전보다 기술적으로 더 구체화, 복잡화, 상세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우선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의 분량이 증가되었다. 편제의 복잡화 및 편성·운영 지침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재량 활동(교과 재량, 창의 재량), 수준별 교육과정(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형) 선택 교과(일반 선택, 심화 선택, 시·도 선택, 학교 선택, 학생 선택)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보다 과감하게 간략화, 단순화, 대강화를 추진하여 교육 현장에서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사학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준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립 학교의 교육을 보다 개성화, 특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 앞으로 교육과정 분야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 교과서 편수 행정

■ 글 / 김만곤(용인 성북초등학교 교장)



**교**과서 편수 행정에 대하여 우리 나라 편수 조직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편수 행정을 전망해 보려고 하였다. 다만, 편수 행정에 대한 전망은 그 성과의 그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인식, 외국의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가능한 일이어서 그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필자의 인식을 나타내어 보려고 하였다.

### 1. 편수국(編修局)의 부침(浮沈)<sup>1)</sup>

편수 행정을 담당해 본 인물들은 '편수관'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편수관이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의 춘추관(春秋館)에서 유래한다. 편수관이라는 이름의 관리는 고려 시대에는 1356년(공민왕 5년)에 제정된 사관(史館)의 관리였고, 조선 시대에는 춘추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으로부터 중4품까지의 관리였다.<sup>2)</sup>

광복 후, 우리 정부에서 교과서를 편찬하는

사람들에게 편수관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은 국가에서 책을 만드는 일에 대한 해석에 따랐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에서 관련 용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책을 만들어 내는 일'을 편찬(編纂)이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책을 지어 내는 일'을 편수(編修)라 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직제상의 편수관은 없고 옛날에 편수관들이 하던 일을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들과 몇 명의 서기관, 교육행정사무관, 교육행정주사들이 하고 있지만, 그들 중 교육 전문직들은 스스로 '편수관'이라 부르면서 긍지와 책임감을 자각하기도 하고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정부 조직 중에서 편수국처럼 간단하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은 조직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차례의 신설·폐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되고 없는 그 기구의 기능과 조직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광복 직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편수 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광복 직후의 편수국 설치

문교부는 우리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정부를 수립한 직후인 1948년 11월 4일에 1실, 5국, 22과로 신설되었고, 이 때 편수국은 편수과(編修課), 번역과(翻譯課), 발행과(發行課)의 3과로 설치되었다. 실·국장은 이사관, 기감 또는 편수관(編修官)으로 보(補)하였고, 각 과장은 서기관, 기정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였으므로 편수관의 위상과 기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변천 사항을 살펴보면, 1945~1946년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기간이었고, 1946년 9월 1일에는 국민 학교와 중학교(초급, 고급) 교수 요목(教授要目)을 시달하여 제1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편수국은 그 후에 여러 차례의 부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폐지되었을 때는 대체로 오늘날의 학교정책실(장학실)에 소속되면서 그 형태 또한 다양하게 변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 나. 1950년대의 편수국

1950년 3월 30일에는 편수국의 번역과가 폐지되어 편수과, 발행과 2개 과만 남았고, 공무원의 종류를 이사관, 기감, 편수관, 장학관, 서기관, 기정, 비서관, 통역관, 사무관, 기좌(技佐), 부편수관(副編修官), 체육관, 주사, 기사, 비서, 통역사, 서기, 기원으로 하였다.

이어 1955년 2월 17일에는 장관, 차관 외에 이사관 5명, 편수관 6명, 장학관 4명, 서기관 15명, 기정 1명, 비서관 1명, 통역관 1명, 사무관 17명, 기좌 1명, 부편수관 2명, 체육관 1명, 주사 24명, 기사 2명, 비서 1명, 서기 1명, 계 82명의 공무원을 두었고,

편수국의 편수과와 발행과를 편찬과(編纂課)와 출판과(出版課)로 개편하였다. 또, 1958년 10월 29일에는 문교부의 총 정원이 77명이었는데 편수관은 2급(級) 4, 3갑(甲) 2명이었다. 말하자면 편수국의 편수관은 오늘날의 장학관, 서기관보다 높은 위상으로 별도의 직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변천 사항을 보면, 1954년 4월 20일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제정·공포하였고, 이어 1955년 8월 1일에는 국민 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제정·공포하였다.

#### 다. 1960년대의 편수국

1961년 10월 2일에는 문교부가 4국, 14과로 되었고, 학무국에 장학관, 편수관 및 부편수관을 두었으며, 1963년 12월 16일에는 기획관리실, 장학실이 신설되고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을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편수국, 문예체육국으로 개편하였다.

또, 1968년 7월 24일에는 문교부의 직무 중 ‘출판, 저작권, 문화, 예술의 기능’을 삭제하고 국정 교과서 편찬과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발행과의 ‘저작권’ 기능을 삭제하였다. 이어 1969년 7월 22일에는 편수직의 업무 내용이 교과서의 편수 업무와 교육과정의 연구 등 교육 연구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서 편수국장 밑에 있는 ‘교과별 편수관, 부편수관, 편수관보(補)’를 교과별 ‘편수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하여 교과서의 편수, 교육과정 연구 및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수직을 교육연구직으로

**장학실에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을 신설하였다**  
**(장학실 전면 개편 : 4 담당관 → 6 담당관 - 교육연구담당관, 새마을교육담당관,**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과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  
**이 변화에 의해, 편수관은 이후 편수국이 신설될 때까지 없어진 것이었다.**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편으로는 편수직의 위상이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변천 사항을 살펴보면, 1963년 2월 15일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공포하였고, 1969년 9월 4일에는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1969년 7월 22일에는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 교육 전문직 26 명(장학관 21 명, 장학사 4 명, 교육연구사 1 명)이 증원되었으나 다시 1970년 1월 26일에는 정원 중 30 인을 감축하면서 편수국에 교과별로 편수관(2 명) 또는 교육연구관 20 명을 두게 되고 그 대신 편수관 2 명, 부편수관 10 명, 편수관보 9 명이 감축되었다.

#### 라. 1970년대의 편수국 폐지

1973년 3월 28일에는 편수국장의 직급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장학관으로 바꾸었고, 1976년 12월 31일에는 교과서 편찬 요원 14 명(교육연구관 4 명, 교육연구사 10 명)을 증원하였다. 이는 중·화학 공업 교육을 위한 공업계 고등 학교 교과서 편찬 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에는 또 장학관으로 보하던 편수국장을 이사관, 부이사관 또

는 장학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8년 3월 14일에는 처음으로 편수국이 폐지되고 장학실에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을 신설하였다(장학실 전면 개편 : 4 담당관 → 6 담당관 - 교육연구담당관, 새마을교육담당관,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과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 이 변화에 의해, 편수관은 이후 편수국이 신설될 때까지 없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변천 사항을 보면, 1973년 2월 14일에 국민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공포하였고 고등 학교에 일본어 과목을 신설하였다. 그 해 8월 31일에는 고등 학교의 국사 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1974년 12월 31일에는 고등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공포하였고, 1977년 2월 28일에는 고등 학교 정치·경제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되었다. 또, 1979년 3월 1일에는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

#### 마. 1980년대의 편수국 신설 및

##### 장학편수실로 개편

1980년 2월 27일에는 문교부가 2 실, 8 국, 30 과, 19 담당관(정원 519 명) 체제를 갖추었다. 이 때, 편수국이 다시 신설되어 2 개 과(편수과, 발행과), 4 담당관(교육과정담당관,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

당관)을 두게 되었다. 기록에는 장학실에서 통합·운영하던 장학 지도 기능과 교과서 편찬, 발행 기능을 분리하여 장학 지도 기능은 6개 장학관을 두어 장학실에서 관장하고, 교과서 편찬, 발행 기능은 신설된 편수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장학 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교과서 편찬 및 발행 기능을 보강하였다.

그러나 2년도 채 되지 않은 1981년 11월 2일에는 문교부가 3실, 6국, 26과, 19담당관(정원 531명) 체제로 변하면서 장학실과 편수국을 통합하여 장학편수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9담당관을 두게 되었다. 즉, 장학편수실장 밑에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두어 편수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교육연구장학관, 정신교육장학관, 교과지도장학관 및 생활지도장학관을 두어 장학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어 1982년 3월 20일에는 편수총괄관을 편수관리관으로 개칭하였고, 1990년 1월 3일에는 ‘국어 및 한글에 관한 연구 기관의 지도·감독’ 업무를 신설된 문화부로 이관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변천 사항을 살펴보면, 1981년 12월 31일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었고(한국교육개발원에 시안 개발 위탁), 1985년 1월 17일에는 고등학교 교련 과목의 국민정신교육 강화 및 군사 기능 내용의 통합 축소, 특별활동에서의 학도호국단 활동을 학생회 활동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1987년 3월 31일에는 중학교 교육과정, 6월 30일에는 국민 학교, 1988년 3월 31일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는데, 이를 제 5차 교육과정이라고 한다(역시 한국교육개발원에 시안 개발 위탁).

바. 1990년대의 편수국 부활 및 폐지,  
편수관제 종식(終熄)

1992년 6월 30일에는 중학교, 9월 30일에는 국민 학교, 10월 30일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었는데, 이를 제 6차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직접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한 교육과정으로 유명하다. 당시의 편수관리관은 함수곤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였고,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동국대학교 한명희 교수였다. 이 교육과정 중 국민 학교 교육과정은 영어 교과의 신설을 위해 1995년 11월 1일에 부분 개정되었다. 제 4, 5차 교육과정 개정이 장학편수실 체제에서 힘겹게 이루어졌던데 비해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편수국은 곧 부활되었다.

즉, 1994년 5월 16일 문교부는 3실, 4국, 23과, 25담당관(정원 506명)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 때 각급 학교의 장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개편하였고, 편수국에는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지만 편수관은 3명이었고, 다른 편수 요원들은 장학·연구직렬로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편수관보의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은 다시 폐지되어 초·중등교육실(1998년 2월 28일에 학교정책실로 바뀌었음.) 속에 초등장학관, 중등장학관, 교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심의관, 교원정책담당관, 교원양성담당관, 교원복지담당관,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 유아교육담당관, 특수교육담당관

**2001년 1월 29일에는**  
**‘국가 핵심 역량인 인적자원 개발 정책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었다.**

이 신설되어 실제로는 교육과정심의관 아래에서 교육과정담당관과 편수관리담당관이 종래의 편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6년 7월 5일은 그러므로 편수관 제도가 사실상 종말을 맞이한 날이었다(마지막 편수국장: 沈琬漢). 이러한 조치는 1995년 5월 31일 당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인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1996년 2월 9일에 새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제시함으로써 교육부에서는 그 해 3월 19일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을 진행하는 중에 일어난 변화였다. 이 때, 편수국은 광복 직후부터 모아 온 각종 자료를 모두 폐기하듯 사무실을 정리하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다.

1996년 7월 5일의 체제는 이후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1999년 5월 24일에는 ‘인력과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학교정책실의 ‘학교정책심의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에게 이관하였으나, 이 후 교육과정정책심의관 폐지(2000년 9월 1일), 교육과정담당관실 폐지 및 교육과정정책과 신설, 편수관리담당관 업무의 평가관리과 흡수 및 평가관리과 업무 중 발

행·공급 업무의 교육과정정책과 흡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2001년 1월 29일에는 ‘국가 핵심 역량인 인적자원 개발 정책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변천 사항을 살펴보면, 1997년 12월 12일에 공업계 고등 학교 2·1 체제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1997년 12월 30일에는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는데 이 교육과정은 적용 단계에서 교직 단체의 극심한 비판에 부딪혀 ‘교육과정정책과와 고교분투한 교육과정’<sup>4)</sup>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사. 오늘날의 편수 조직

2005년 3월 초에 현재 1 차관보, 2 실, 3 국, 4 심의관, 37 과(담당관), 정원 492 명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편수 조직은 단 1 개 과(교육과정정책과)로 학교정책실의 학교정책심의관 산하에 있으며, 학교정책심의관은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직원단체지원과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2004년 초에 평가관리과가 폐지되면서 발행·공급 업무를 흡수하였고, 실제로는 과장(장학관) 1 명,

장학관 1명, 교육연구관 6명, 교육연구사 12명,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주사 1명, 기능직 1명 등 24명이 교육과정·교과서 정책, 역사 왜곡 대책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고구려연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등의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2. 편수 행정의 전망

우리 나라 편수 행정이 어떤 위상과 기능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전망의 관점은 견해에 따라 다를 것이나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기능(교육인적자원부 편수 기능)과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본질(국민 교육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 조직의 유지·발전에 관한 논의이고, 후자는 그러한 기능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될 것이다.

### 가. 여론 수렴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

오늘날 교육과정 정책의 결정은 의사 결정 과정의 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sup>5)</sup>,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과 적용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은 매우 뚜렷하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정부 주도로 결정되어 왔으며, 현장 교원들은 이렇게 결정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교육이 그만큼 교육과정의 중요성이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실제로 제 6차 교육과정까지는 정부에서 관련 학자들을 모으거나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고 교원 대표들에게 그

내용과 새로운 이론·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데 노력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교원들 중에도 아직 교육과정이라는 것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또, 제 6차 교육과정의 경우에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정책에 따라 각 시·도와 단위 학교에 실행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데만도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교육과정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로 나온 교과서에서 대단하지 않은 오류나 발견하여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구성,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 활동의 신설·확대, 교과별 학습 내용의 최적화,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도입 등 새로운 변화를 크게 요구하는 개혁적인 교육과정으로, 허다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양한 비판과 여론의 초점이 되었고,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의견 충돌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충돌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내를 요구한 교육과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이 교육과정의 특징이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교육 현장의 여건과 관련된 행·재정적 문제, 입시 위주 교육의 전통, 교원의 의식과 교직 풍토 문제, 교원의 신분과 자격·양성·연수 등 교원 수급에 관한 문제, 교원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 정치적·사회적·이념적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실행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의

국민 모두에게 교육과정의 존재를 널리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성과를 남기게 된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들은 누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주장은 실제로 반영될 수 있고 그것이 실현되면 국민 교육을 통하여 각 이해 집단이—심지어 정부 기관까지도 포함하여—자신들이 하는 일을 다른 어느 방법보다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기반을 튼튼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으로 선정되는 개념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충분히 알게 된 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할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 선정에 대한 의견이 집단이기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교과서의 내용을 정부 주도로 결정하던 그 관행과 그 결과도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위험한 인식에 따라 ‘권위 무너뜨리기’와 같은 사태로 진전될 가능성까지 안게 되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에는 경제 교육과 금융 교육, 신용 교육, 성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무용 교육, 미디어 교육, 한자 교육, 제2외국어 교육, 국사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 주제에 대하여 한결같이 별도로 정규 교과목화하거나 그 내용을 확대하고 필수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매우 강하고 지속적이어서 전통적인 담론 형식으로는 안정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조직이 과연 이러한 의견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그 결과의 조정, 통제, 반영

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관련 학자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은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 어언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으므로 곧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편수 기구는 그 기능이 무력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행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 봄에 교육과정·교과서에 대한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여 이제 국민들이 그 조치를 이용하기만을 기다려서는 또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미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국가가 언제까지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

교육과정은 초·중등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 기능하는 국민 교육의 기준이다. 그것은 만약 학교가 사라진다고 해도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 그 기준의 중요성은 학교 교육에 대한 자율권이 확보될수록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므로 그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학교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각종 평가에서도 교육과정 기준은 당연히 그 근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 계획과 수업, 평가의 더욱 강력한 기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우리 교육이 한층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정책 수립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며,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불가분의



## 교육과정·교과서에 대한

### 기능의 필요성·중요성과 적절한 수행 기관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정부의 해당 조직에서 가장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이 분명한 입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 여러 나라의 편수 조직은 대체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그 규모는 다양하여 매우 드물게 중앙 정부에는 우리처럼 단 몇 명의 정책 입안자만 두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별도로 거대한 규모의 국립 연구기관을 두고도 중앙 정부 내에 별도로 100여 명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정부 조직을 축소하면서 편수 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국립 민간 기구를 만들었으나 대입 수능 고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아직까지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의 기능만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과정·교과서에 대한 기능의 필요성·중요성과 적절한 수행 기관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정부의 해당 조직에서 가장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이 분명한 입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편수 기능의 변화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이다.

오늘날 바람직한 편수 기능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아직도 출판사의 편집진이 할 일을 정부의 해당 과목 담당자가 할 일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있다. 실제로 옛날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편수관이 엘리트였었다면 그러한 엘리트는 이제 정부 밖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정 도서의 검정화 및 인정 도서의 확대, 검인정 도서 심사의 정기적 실시 등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여 정부가 할 일만을 하고 민간이 할 일의 수준을 높여 주어야 정부에서는 보다 수준 높은 정책 수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편수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자들은 가능한 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전진하라는 훈계를 하거나 그들에게는 전문성이 없어 잘 모르는 일은 무조건 민간에 이양하라는 결정을 내리기 쉽다. 그러므로 편수 행정을 담당할 전문가들은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전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변화함에 따라 편수 행정은 더욱 어려운 활동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교과서 정책 담당자들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능한 한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은 외부나 상부로부터의 압력이 없다면,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라는 강요가 없다면 옛날부터 해 오던 일, 이미 익숙하

여 잘 할 수 있는 일에 매달리는 것을 선호하기 쉽다<sup>6)</sup>. 그것은 더 힘들고 괴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없는 채로 권위와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상과 권위는 잠깐 동안만 지켜질 수 있으며 그 예가 바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적용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E. H. 카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중략) 우리는 역사적으로 안정된 평온한 상태 속에서는 그저 부차적인 혹은 ‘한정된(specialized)’ 변화만을 원하거나 마지못해 인정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sup>7)</sup>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은 다른 모든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그 정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새로운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편수의 역사는 다른 어떤 교육 행정보다 뚜렷한 엘리트의 역사였으며, 그것은 오늘날이나 미래에도 그런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엘리트인가는 시대에 따라 그 시대보다 앞선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꾸며 갈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한 우리의 꿈과 의지를 보여 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sup>8)</sup> 연

부(교육과정정책과)에서 이 교육과정의 합리성, 필요성,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이 교육과정을 제정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나 시안 연구·개발을 위탁받아 수행한 기관의 학자들은 대부분 침묵을 지키거나 그들 중의 일부는 오히려 현장 교원들에게 ‘제7차 교육과정은 문제가 많은 교육과정’이라는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 5) 김기석은 ‘지식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은 사회적·역사적 구성체’라고 전제하고, 교육과정의 현실적 분석은 사회적 이론 가운데 의사 결정 관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 결정 관점에서 본 교육과정 개혁 과정은 일종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 집단은 이념이란 지적 상징을 조작하여 그들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지식을 선정, 조직하여 교육 내용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그 결과가 교육과정의 개혁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교육과정의 개혁은 따라서 사회 통제 방식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시도라고 하였다. — 金基奭, 「교육과정 개혁 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 전공 석사 학위 논문, 90~92쪽.
- 6) R. S. Lynd, *Knowledge for What?* (N. Y., 1939.). 88쪽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흔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 즉 자신들이 활기에 차 있었고 힘이 있었던 시기는 지향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저항한다. 따라서, 원숙기에는 도달했어도 상대적인 힘을 상실한 채 무너져 가는 문화 전체는 주로 잃어버린 황금 시대를 지향하면서 현재 속에서 그럭저럭 목숨을 부지해 가는 것 같다.’ — E. H. 카(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글방(초판 15쇄), 2004, 176쪽에서 재인용.
- 7) E. H. 카(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글방(초판 15쇄), 2004, 255쪽.
- 8) Arthur K Ellis, James A. Mackey, Allen D. Glenn, *The School Curriculum*,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1988, 3쪽.

- 1) 이하에서 편수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1988), 『정부조직변천사』에서 발췌함.
- 2) 오희복, 『우리 나라 역대 국가들의 관료 기구 및 관직명 편람』, 여강 출판사, 1999, 440, 461쪽.
- 3) 교육부, 『편수업무편람』('94. 11. 30. 편수업무담당자 연수 자료), 168쪽.
- 4) 언론, 교직 단체 등의 비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



# 교과용 도서 편찬 제도

■ 글 / 노희방(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서 교육 내용은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 교육의 교육 내용은 두 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는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거시적 수준의 교육 내용이다. 둘째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찬된 교과서의 내용이다.<sup>1)</sup> 교과서에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교육 내용이 수록되어 각 교과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일반으로 강조하는 민주 시민 의식과 가치관, 창의성이나 비판 능력과 같은 고등 수준의 사고력 교육이 모두 교과서를 통해 지도되고 학습된다.

학교 교육에 대한 교과서의 영향은 이와 같이 지대하므로 우리 나라에서 교과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편찬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교과서 관련 법규를 통하여 교과서에 대한 정의

의 변천 및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 1. 교과용 도서의 정의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와 지도서로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였다. 광복 이후 교육법(1949. 12. 31.~1997. 12. 12.)과 초·중등 교육법(1997. 12. 13.~)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과용 도서 관련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29.~1967. 4. 16.),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1977. 8. 2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29.)

교과용 도서라 함은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생용 도서와 고등 학교, 사범 학교, 고등 기술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수용의 패도, 지구의류를 말한다.

○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1963. 7. 3.)

교과용 도서라 함은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를 말한다.

○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70. 8. 3.)

교과서라 함은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한 교육의 주된 교재로서 교수용으로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 도서로 문교부 장관이 저작권을 가졌거나 그의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 인정 도서를 말한다.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와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 구분한다.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와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 구분한다. 인정 도서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서 또는 지도서로 대용하도록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를 말한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83. 12. 7.)

인정 도서 관련 규정 개정 - 인정 도서라 함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같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서를 말한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93. 12. 27.)

인정 도서 관련 규정 개정 - 인정 도서라 함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같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도서를 말한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95. 7. 20.)

인정 도서 관련 규정 개정 - 인정 도서라 함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같음하거나 이를 보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를 말한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97. 2. 11.)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말한다.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 저작물 등을 말한다.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그 보완 교재를 말한다. 인정 도서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 교재를 말한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002. 6. 25.)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용 도서는 1970년 8월 전까지는 대개 학생용 도서를 의미하였으나 이후부터 교사용 지도서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형태면에서는 1997년 2월까지 는 서책 중심이었으나, 이후부터는 음반, 영상물 등을 보완 교재로 규정하였고, 2002년 6월부터는 서책과 함께 음반, 전자 저작물 등도 보완 교재가 아닌 교과서로 규정하였다. 한편, 현행 법규에서 인정 도서는 국·검정 교과서나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1997년 2월 이전까지는 국·검정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같음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 2. 교과용 도서 편찬 제도 변천

우리 나라에서 교과용 도서 편찬은 국가의 관여 방식 또는 관여 정도에 따라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용 도서를 저작하거나 위탁하여 개발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모든 국정 도서를 위탁하여 편찬하고 있다. 비록 국정 도서는 위탁·편찬되고 있으나 국정 도서의 편찬 계획, 연구·개발, 심의에 이르기 까지 모든 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검정제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저작 주체는 민간으로서 근본적으로 국정제와 다르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간접적으로 교

교과용 도서 편찬 제도의 변천

구 분	주요 내용
제 1 차 교육과정기 (1954~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국정, 검정, 인정</li> <li>○ 국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 : 정규 교과목 학생 및 교사용 도서</li> <li>- 초등 학교 외 각 학교의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li> </ul> </li> <li>○ 검정 : 초등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국정으로 정하지 않은 교과용 도서</li> <li>○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1950. 4. 29.),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29.)<sup>2)</sup></li> </ul>
제 2 차 교육과정기 (1963~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국정, 검정, 인정</li> <li>○ 국정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 교과목의 학생용 교육용 도서, 교사용 교과용 도서</li> <li>- 중등 : 국어, 국민 윤리, 국가 이념 반영 과목, 실업에 관한 교과목 중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서</li> </ul> </li> <li>○ 검정 신청 자격 : 저작자 또는 출판사</li> <li>○ 검정 합격 종수 : 제한 없음(제 2 차 7 중).</li> <li>○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li> </ul>
제 3 차 교육과정기 (1973~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 종류 : 1 종, 2 종, 인정</li> <li>○ 1 종 도서 : 초등 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실업계 고등 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 인문계 고등 학교 국어, 국민 윤리, 국사, 사회과 교과서</li> <li>○ 검정 신청 자격 : 저작자로 제한</li> <li>○ 2 종 도서 합격 종수 : 5 종</li> <li>○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li> </ul>
제 4 차 교육과정기 (1981~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 종류 : 1 종, 2 종, 인정</li> <li>○ 2 종 도서 확대 :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사회과 외의 도서 및 고등 학교 일부 도서의 2 종화</li> <li>○ 2 종 도서 출판업자 자격 요건 강화 : 최근 3 년간 5 종 → 최근 3 년간 10 종 이상 발행 실적 있는 출판사</li> <li>○ 2 종 도서 유효 기간 연장 : 5 년에서 2 년 범위 내 연장 가능토록 함.</li> </ul>
제 5 차 교육과정기 (1987~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1 종, 2 종, 인정</li> <li>○ 고등 학교 2 종 도서 합격 종수 확대 : 5 종 → 8 종 이내</li> </ul>
제 6 차 교육과정기 (1992~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1 종, 2 종, 인정</li> <li>○ 중학교 2 종 도서 합격 종수 확대 : 5 종 → 8 종 이내</li> <li>○ 고등 학교 2 종 도서 합격 종수 폐지</li> <li>○ 초등 영어 검정</li> </ul>
제 7 차 교육과정기 (199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국정, 검정, 인정</li> <li>○ 중학교 검정 도서 합격 종수 폐지 학년별, 연차별 검정</li> <li>○ 검정 도서 유효 기간 폐지</li> <li>○ 검정 도서의 검정 업무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li> </ul>

※ 자료 : 허강 외, 『교과서의 편찬·발행 등 교과서 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2004, p. 52.

**우리 나라에서 교과용 도서 편찬은**  
**국가의 관여 방식 또는 관여 정도에 따라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용 도서를 저작하거나 위탁하여**  
**개발하는 제도이다.**

과용 도서 편찬에 관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정제는 검정제와 유사한 편찬 제도로서 인정 심사는 검정 심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되며, 대부분의 인정 관련 업무는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다.<sup>3)</sup> 비록 인정 심사가 검정 심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국가의 관여 정도는 실질적으로 검정제에 비하여 훨씬 미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 편찬 제도는 국정제와 검정제가 근간을 이루면서 인정제도 시행되고 있으며, 매 교육과정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앞의 표와 같다.

### 3. 교과용 도서의 변천<sup>4)</sup>

#### 가. 제 1 차 교육과정기(1954. 4.~1963. 2.)

제 1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편찬이 시작된 시기이다. 즉,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법이 정비되고 이 법에 기초하여 교과서 편찬과 검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면에서 제 1 차 교육과정기는 법령에 근거하여 국정과 검정 제도가 정착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에 의거하

여,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편찬되었다.

#### 나. 제 2 차 교육과정기(1963. 2.~1973. 2.)

제 2 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에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1963년부터 1967년에 걸쳐 교과서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다. 초등 학교의 경우, 1, 2 학년용은 1964년부터 사용되었고, 3, 4 학년은 1965년부터, 5, 6 학년은 1966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중등 학교의 국어, 사회, 반공·도덕, 실업 등의 일부 교과서가 국정으로 발행되었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검인정으로 발행되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교과서의 구성도 발견 학습, 탐구 학습 등의 편찬 방식을 지향하여 진일보한 면모를 보였고, 외형 체제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 다. 제 3 차 교육과정기(1973. 2.~1981. 12.)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1977년 중반기까지는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이 적용되었고, 후반기부터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적용기에는 이전과 달리 문교부에서 국정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기획, 감독 기능만 수행하고, 집필, 교정 등의 편찬 기능은 연구

기관이나 대학교에 위탁하였다. 또, ‘검인정령’ 시기에는 교과서를 국정, 검인정으로 구분하였으나, 새 규정에서는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1종은 연구·개발형이라 하고 2종은 자유 경쟁형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교과용 도서 체제는 제 2차 교육과정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다.

#### 라. 제 4차 교육과정기(1981. 12.~1987. 3.)

제 4차 교육과정기에 제작된 교과서는 교과 특성에 따라 판형을 달리하였으며, 또 컬러 인쇄에 지질, 장정 등의 모든 면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초등 학교 1, 2학년 교과서는 4×6 배판으로 판형이 바뀌었으며, 음악, 미술 교과서도 국판에서 4×6 배판으로 확대되어 교과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원색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도 교과 특성을 살려 판형을 크라운판으로 바꾸었다. 전반적으로 지질, 색도, 디자인 등의 외형 체제가 이전 시기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 마. 제 5차 교육과정기(1987. 3.~1992. 6.)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이전 교육과정기와 큰 차이 없이 1종 도서와 2종 도서를 양대 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1종 도서는 1970년대부터 시행해 오던 ‘위탁 개발형’ 체제를 이어받아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 개발을 위탁하였다. 이 경우, 편수관은 편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 위탁하고 개발 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2종 교과서의 합격본 중수를 고등 학교의 경우 제 4차 교육과정기의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였다. 중수의 확대는 저자의 독창적인 집필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을 기대한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1종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 바. 제 6차 교육과정기(1992. 6.~1997. 12.)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종 도서는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편찬하였고, 편찬 과정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면이 없었다.

2종 도서는 교육부가 검정 실시를 공고하고, 저자의 심사본을 받아 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에 최종 합격 도서를 발표하였다. 검정은 학교급별 일시 검정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중학교의 합격본 중수가 5종에서 8종으로 늘어났다. 고등 학교 검정의 경우는, 심사본 제출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참고서가 필요 없는 자율 학습형 교과서로 전환되었고, 심사에서 절대 평가제를 적용하면서 합격 중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중간에 초등 학교에 영어가 도입되면서 교과서를 검정으로 개발하여 처음으로 초등 학교에 검정 교과서가 출현하였다.

#### 사.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12.~ )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용 도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쉽고 재미있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교과용 도서의 구분은 교과용 도서가 개발될 당시에는 1종 도서, 2종 도서, 인정 도서로 되었다가, 2002년 6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정

**교과서의 기능 변화와 함께 교과서 제도면에서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편찬 제도 또는 외형 체제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로 재정립되었다.

제 6차에서 검정으로 개발되었던 초등 학교 영어 교과용 도서가 국정으로 전환되고, 중학교의 사회, 환경, 컴퓨터, 고등학교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이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검정에 있어서 종래 학교급별로 한 해에 실시 하였던 방식을 탈피하여,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1998년 2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검인정 도서의 관리 업무가 교육부에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탁되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급변하는 정보를 다루는 교과목이나 개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교재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지정하여 단위 학교에서 보다 자유롭게 교재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4. 맺는말

지식 정보 시대의 도래와 컴퓨터 및 각종 통신 체계가 발달하여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급속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과서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과서는 불변하는 보편적 진리를 담거나 가장 최신의 것으로 끊임없이 그 내용을 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보를 주

체적으로 찾고, 해석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교과서의 기능 변화와 함께 교과서 제도면에서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편찬 제도 또는 외형 체제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람직하기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정 도서가 최소화되고, 일부 교과서에는 교과서의 저작이나 사용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의거해 교과서가 집필되는 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양질의 교육 내용을 제공할겠다는 책무성과 끊임없는 질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1)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 2000, pp. 385~6.
- 2) 1967년 4월 17일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에 국정과 검인정 교과용 도서 저작에 관한 사항이 통합되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였다.
- 3)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시·도 교육감의 인정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78책의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각 교육과정기의 상세한 편찬 제도와 국정·검인정 업무는 허강 외. 『교과서의 편찬·발행 등 교과서 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2004를 참조하기 바람. 여기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 자료 I : 편수 일반』. 2004, pp. 61~72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교과용 도서 발행과 공급

■ 글 / 정민택(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사무관)



## I. 서론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 편찬·사용에 있어 국가의 관여 정도나 방식에 따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 발행제로 구분된다. 한 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그 나라의 독특한 역사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우리 나라는 해방 직후에는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하여 교과서 편찬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다가 1954년 4월 20일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제1차 교육과정)되면서 점차 교과서 편찬의 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5·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를 거치면서 국정제가 점차 강화되어 가다가,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보급한다는 목표하에 점차 검인정 제도가 확대, 발전되어 가는 추세에 놓여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교과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음미해 보고 향후 지식 기반 사회

에 적합한 교과서 제도를 전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하여, 교육과정기별 교과서 발행·공급 제도의 변천 과정과 향후 전망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 II. 교육과정기별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제도 변천

### 1. 교과서 발행 제도

(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 요목 시기(1945~1954)

이 시기는 8·15 광복 후 식민 세력이 이 땅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파견된 하지 중장이 남한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한 미 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기 이전(1954. 4.)까지를 말한다.

광복 이후 미 군정 초기는 인적·물적 기반의 미비로 교과서 편찬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 교육을 재건하기 위해 1945년 9월에 발족된 조선교육심의회 제9 분과위원회가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국어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과서 편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의 교과서 편찬 발행상의 주요 특징은 국정을 비롯한 검인정 교과서도 발행되었지만 민간인의 자유로운 교과서 개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국정 도서는 초등 학교 기본 교과 및 중등의 국어, 도덕, 상업 등이 있었으며, 검정 도서는 중학교 19 종, 고등 학교 17 종이 있었다.

(나) 제 1 차 교육과정기(1954. 4. ~ 1963. 2.)

제 1 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제 35 호로 제정·공포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정 기준령’으로부터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 119 호 내지 제 122 호로 개정된 ‘국민 학교, 중학교, 인문계 고등 학교, 실업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기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으로 법령상 명칭이 ‘교과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과 교육과정 시기’ 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시기’라고도 한다.

제 1 차 교육과정기는 법령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교과용 도서 편찬이 시작된 시기이다. 물론 국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는 이전의 미군정기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제 1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이전과는 달리,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법이 정비되고, 이 법에 기초하여 교과서 편찬과 검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제 1 차 교육과정기는 법령에 근거하여 비로서 국정과 검정 제도가 정착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 학교는 국정 교과서를 원칙으로 하였

고, 중등 학교는 국정(중·고등 학교 국어, 중학교의 도덕, 고등 학교의 도덕, 중학교의 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검정(국정을 제외한 교과), 그리고 인정(각 교과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심화한 학생용 도서) 교과서를 병용하였다.

(다) 제 2 차 교육과정기(1963. 2. ~ 1973. 2.)

제 2 차 교육과정기는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 119 호 내지 제 121 호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이후부터 1973년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시 개정하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이 때의 교육과정 개념은 교과 간의 횡적인 관련이 비교적 결여된 일군의 교수 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구성된 교과 과정과는 달리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을 ‘생활 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 검인정 교과서를 줄이고 국정 교과서를 늘리는 국정 중심 교과서 체제가 형성되었다. 제 1 차 교육과정 때와는 달리, 국민 학교는 교육과정의 검인정제를 전면 폐지하였고, 중·고등 학교의 경우도 종전의 검인정제도 무제한 인가 방침에서 1 교과목당 7 종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교과서 판매 경쟁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과서 가격을 낮추어 학생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목하에 단행되었다.

중·고등 학교용 국정 교과서를 살펴보면, 중학교는 국어, 실업, 반공·도덕, 인문계 고등 학교는 국어, 국민 윤리, 실업계 고등 학교는 국어, 사회 등 일반 교과목 전부와 발행 부수가 적은 전문 교과목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는 중학교



## 유신 정권은

교육과정 체계 속에 국가의 지도 이념을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의 통제를 이전보다 더욱 강화함에 따라

국정 도서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9개 교과 13 과목, 고등 학교 13개 교과 38 과목, 실업계 고등 학교 농·공·상·수산 4개 교과이다.

(라)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 ~ 1981. 12.)

제3차 교육과정 시기는 1968년에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1972년에 선언된 유신 이념의 구현, 그리고 1960년대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아 1973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부터, 1980년 정부가 초·중등 학생의 개인 과외와 학원 수강을 금지하는 7·30 교육 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981년 교육과정을 개정·공포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행정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77년 중반기까지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이 적용되었고, 이후에 이른바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유신 정권은 교육과정 체계 속에 국가의 지도 이념을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의 통제를 이전보다 더욱 강화함에 따라 국정 도서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77년부터는 새 규정에 따라 국정 도서를 1종 도서(연구 개발형), 검정 도서가 2종 도서(자유 경쟁형)로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었

다. 당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1종 도서의 대상은 국민 학교, 중학교, 실업계 고등 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 인문계 고등 학교 국어, 국민 윤리, 국사 등이었다. 그리고 검정 합격 중수는 종전의 ‘교과목당 7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었다.

(마) 제4차 교육과정기(1981. 12. ~ 1987.3.)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점, 즉 학습 내용의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 기초 교육·일반 교육의 소홀, 전인 교육·인간 교육의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식의 학문성에서뿐만 아니라, 유용성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해야 할 필요와, 1980년 7·30 교육 개혁 조치에 따른 교육 방향의 전환 필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현실과 이에 파생되는 제 요구를 반영할 필요 등에 따라 1981년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 1987년 3월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문교부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된 ‘행정적 모형’에서 ‘연구·개발형’으로 바뀌게 되었고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1982년 3월 11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또, 1종 도서의 범위가 축소되고, 2종 도

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당시 1종 도서는 국민 학교의 모든 교과서와 지도서,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 윤리, 국사 등이었다. 검정 합격 종수는 1교과목당 5종으로 종전과 동일하였다.

(바) 제5차 교육과정기(1987. 3.~1992. 6.)

제5차 교육과정기는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1987년 3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약 5년간이다. 1986년 문교부가 특기할 만한 외부적인 사건 없이 교육과정 개정을 결정하고, 당시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는 ‘부분 개정’의 방침을 설정하는데, 교육과정 개정의 방침으로 ‘교육과정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세 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이전의 교육과정기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종래의 ‘1교과, 1교과서’의 틀을 탈피하여 국민 학교에 복수 교과서제를 도입하였으며, 교과서 중앙 편찬 방식을 탈피하여 국민 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시·도별로 개발·편찬하였다.

또, 검정 합격 종수는 중학교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1종 도서는 국민 학교 전학년 교과서와 지도서, 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와 지도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어, 국민 윤리, 국사 교과서와 지도서가 있다.

(사) 제6차 교육과정기(1992. 6.~1997. 12.)

제6차 교육과정기는 1992년 6월부터 1997년 12월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고시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에 교과서와 관련된 크고 작

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먼저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한국교과서연구소가 발족(1992. 8.) 되었으며,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이 제정(1992. 8.)되었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어서 저작물 보상금 제도는 우리 교육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5년간 유예 기간을 단서로 두고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 당국은 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2종 도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2종 합격 종수는 중학교의 경우에 종전의 5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절대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정된 합격 종수가 폐지되었다. 이 시기의 1종 도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영어를 제외한 전 교과(총 9개 교과), 중학교의 경우에 국어, 도덕, 사회(국사 포함), 컴퓨터, 환경의 총 5개 교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통 교과 14개 과목, 전문 교과 378 과목이 해당된다.

(아) 제7차 교육과정기(1997. 12.~현재)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에서 탈피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 즉 학생 중심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기는 1997년 12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검정 합격 종수 폐지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중학교 검정 합격 종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검정 방식이 종전의 ‘일괄’ 검정에서 ‘학년별’,

2002년 6월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선 교과서 구분의 명칭이 ‘1종 도서’는 ‘국정 도서’,  
‘2종 도서’는 ‘검정 도서’로 다시 환원되었다.

‘연차별’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인정 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교과목 중 78개의 전문 교과목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6월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선 교과서 구분의 명칭이 ‘1종 도서’는 ‘국정 도서’, ‘2종 도서’는 ‘검정 도서’로 다시 환원되었다.

현행 국정 도서는 초등학교 모든 교과용 도서, 중학교는 국어, 도덕, 국사, 생활 외국어의 교과서와 지도서, 특별 활동 지도서,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지도 자료, 고등학교는 국어, 도덕, 국사, 문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생활과 과학, 해양 과학, 아랍어 I·II, 교련 교과서와 지도서, 특별 활동 지도서,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지도 자료, 그리고 실업계 전문 교과가 있다. 그 외의 교과는 검정 도서이다.

## 2. 교과서 공급 제도

(가) 발행자 공급 또는 도매업자 공급 제도  
(1945~1949)

이 시기는 교육과정기로 분류할 때 ‘군정기’에 속한다. 이 기간에는 주로 교과서 출판사가 독자적으로 서점(또는 학교)에 직접 교과서를 판매(공급)하거나 도매업자에 판매

(공급)를 위탁하여 공급권을 주었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 때는 발행자 공급과 도매업자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도매업은 삼중당이 첫 출발을 하였으며, 뒤이어 일성당 서점, 유길 서점 등의 전문 도매상이 탄생하여 공급 체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또, 1948년 9월에 대한교과서(주)가 실업 교육 강화 등을 위해 교과서 전문 출판사로 탄생하여 국정 교과서 편찬, 발행, 공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나) 발행사별 지정 공급인(서점) 제도  
(1949~1977)

이 시기는 교육과정기로 분류할 때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1차, 제2차, 제3차 교육과정기 중반 이후까지에 해당된다. 동 제도는 발행사별로 전국에 지정 공급인(414개 서점 또는 대행자)을 두고 그들과 발행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1977년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서점상들의 학교 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공급 대행자 지정 공급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무려 27년간 계속되었다. 공급 수수료는 12~15% 수준이었다.

(다) 공급 대행자 지정 공급 제도  
(1977. 8.~2002. 9.)

이 시기는 교육과정기로 분류할 때 제3차 교육과정기 중반 이후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인 2002년 9월까지의 기간이다. 공급 대행자 지정 공급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77년 3월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제32조(교과서 등의 공급 대행 기관)에 기인한다. 동 제도는 정부가 공급 대행자를 지정하고 공급 대행자는 전국에 지역 공급소를 두어 학교에 공급하는 제도로, 공급 수수료는 교과서 정가의 4.7% 수준이었다.

공급 대행자로 역할은 국정교과서(주)가 1977년부터 1998년까지 가장 오랫동안 수행하였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정교과서(주)를 인수한 대한교과서(주)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맡았으며, 2001년에는 교과서 발행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이 일을 맡아 무려 25년이나 이러한 관 주도의 공급 대행 체제가 유지되어 온 셈이다.

#### (라)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 제도

(2002. 10.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6월 25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종전의 제32조(교과서 등의 공급 대행자) ‘교육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급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 규정 제31조(공급)에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그 발행 계획서에 따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발행자로 하여금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과서 공급 제도를 ‘공급 대행자 지정 제도’에서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제’로 전환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 공급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제’로 전환하여 발행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급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율 책임 공급제 도입 이후에 각 발행사들은 공급 경비 절감과 학교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는 대한교과서(주)에서 일괄 공급하도록 하고, 검정 교과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일괄 공급하도록 하는 2원 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 Ⅲ. 향후 전망 및 발전 방향

#### 1. 교과서 발행 제도

현재 우리 나라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제를 도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정 도서의 심사 방법, 기준 등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검정 방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제, 검정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정제에는 이른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점도 있고, 한편으로 교과서 발행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인정되지만, 교과서 발행에 국가가 너무 많이 관여하고 획일화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및 다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우리 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국정 도서는 점차 줄여 나가고 검인정 도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기 교과서 개편시에는 일부 시장성이 적은 전문 교과를 제외하고는 중·고등 학교 교과서를 대부분 검정 도서로 개발할 계획이며, 초등 학교에도 일부 교과를 검정 도서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유 발행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인적 자원부의 정책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자의 집필 능력, 출판사의 편집 인력과 발행 능력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 2. 교과서 공급 제도

교과서 공급 제도는 해방 이후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발행자 또는 도매업자 공급 제도, 발행사별 지정 공급인(서점) 제도, 공급 대행자 지정 공급 제도,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 제도로 계속 변화, 발전해 왔다. 현재 시행 중인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 제도’는 발행사가 자사 발행 교과서를 주문자인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교과서 공급 제도를 바꿀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광복 직후에는 우리 나라의 인쇄 시설이 낙후되고 유통 체계가 미흡하여 교과서가 신학기 시작 이후에 공급되어 학교 교육에 많

은 차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교과서는 학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 자료이므로 양질의 교과서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둘째, 공급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가능한 한 유통 체계를 단순화하여 공급 비용을 줄임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교과서를 공급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급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급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제’로 교과서 공급 제도를 실시한 이후 교육 현장에서 공급 서비스의 질이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급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21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 자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 교육부. 교과서 백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 광병선.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 허 강.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도서 출판 일진사, 2004.

# 교과서 외적 체제와 디자인

■ 글 / **현영호**(한림성심대학 교수)



## I. 머리말

교과서의 외적 체제란, 지식이라는 무형적 형태를 시각적 형태로 가시화한 외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전달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언어적인 요소(글자)와 비언어적인 요소(그림)를 사용하여 보기 좋고 흥미롭게 디자인하여 학습 내용으로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종이에 인쇄하여 엮어 낸 책의 외형을 말하며, 낱 쪽의 페이지로부터 소단원과 중단원, 그리고 대단원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으로 접근해 가는 디자인의 모든 과정을 총칭한다.

따라서, 교과서 디자인이란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내용을 시각화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끊임없는 '기호화' 과정이므로 사용자의 기호를 철저히 분석하고 배려하여 '재미(fun)'와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재미'와 '변화'를 교과서의 외적 체제를 완성하는 디자인의 핵심 인자로 인식하고, 그 과학적 운용 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시각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편집자와 아트디렉터의 상호 조화가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필수 요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사항을 분류하여 광복 이후부터 현재의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외적 체제와 디자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교과서 외적 체제의 변천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군정기 및 교수 목록기(1945. 8.~1954. 4.)를 시점으로 제1차 교육과정기(1954. 4.~1963. 2.)를 거쳐 제7차 교육과정기(1997. 12.~현재)에 걸쳐 약 50년간 편찬되어 왔는데, 미 군정기를 시작으로 정부 수립(1948. 8. 15.) 후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체제가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교과서의 외적 체제의 개선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검인정 교과서 형식 사열 기준'에 의거하여 교과서의



검정 업무가 시작되었으나 주로 교육과정의 내용에 관련된 판종, 활자, 행수, 자수, 자간, 인쇄, 체제, 제본 등이 전부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제’란 디자인에 관련한 외적 체제가 아니라, 표지의 용지와 검인정 관련 표시의 위치를 정한 정도였다. 이러한 제 1차 교육과정기로부터 현재까지의 외적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변천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판 형

우리 나라의 교과서의 판형은 제 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 4차 교육과정기까지 국판이 압도적이었으나 제 5차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4×6 배판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국판이 용지 이용의 경제성과 책 관리의 용이성 등은 있으나 레이아웃의 융통성과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4×6 배판으로의 전환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쪽 수

광복 이후, 우리 나라 교과서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기준 쪽수를 설정하고 쪽수의 10% 내외로 쪽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 자료를 얼마만큼 포함시킬 것이냐는 사항에 따라 외적 체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쪽수의 제한이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 ③ 색 상

현재 우리 나라의 교과서의 색도는 대부분이 4도로 인쇄되고 있으나 영어, 수학, 국어, 외국어, 한문 등의 교과목은 아직도 2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학습 효과의 향상을 위하여 전면 4도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러나 같은 교과서 내에서 교육적, 경제적 효용성이 높지 않은 부분은 1색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 ④ 지 질

우리 나라 교과서의 용지는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과 ‘집필상의 유의점’에 제시되어 있으며, 마분지로부터 갱지, 중질지, 고급 서적지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인쇄 효과는 지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문 위주의 교과서는 미색지를, 화보용일 경우에는 백색 용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인쇄의 효과를 감안하면 중질지보다 좋은 양질의 용지 사용이 요구된다.

#### ⑤ 디자인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부는 제 6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데 지침이 되는 집필상의 유의점에 ‘편집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일이 없었다. 그 후, 제 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편집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늦은 감이 있지만 제 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교과서의 편집 디자인이 잘 구성되어 있을 때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교과서 정책에 반영했다는 사실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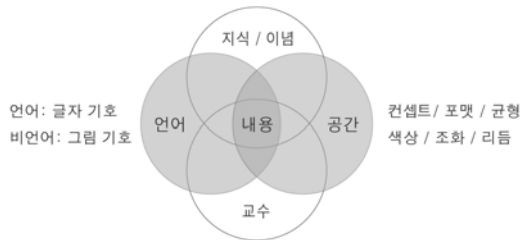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과서의 정체가었던 40여 년 간의 세월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업화로 인하여 모든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우리 나라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편집 디자인의 현실을 다시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Ⅲ. 교과서 외적 체제 및 현상과 개선

#### 1. 시각적 측면

교과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교사가 교수할 수 있도록 글자와 그림 등을 사용하여 종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배치해 놓은

매개체로서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을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그 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교과서 외적 체제의 기능

이 그림을 참고해 보면, 과거의 교과서에 나타난 외적 체제는 언어적인 요소로만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쳤지만, 미래의 교과서는 언어적인 요소의 배열에서 벗어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공간은 보이지 않는 상상을 자극하고, 깊이감과 변화, 형태와 바탕, 통합과 분리 등 시각 심리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화된 영상 시대를 살아가는 10대 학생들 수준에 어울리는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적 배려는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데 기대 이상의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편집 디자인의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가) 학생과의 중매쟁이 - 컨셉트

만약, 이 지구상에 여자가 단 한 명뿐이라면, 여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특별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까? 아마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여자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과 다른 성질, 또는 차별화를 곧 컨셉트(concept)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우리 나라 교과서는 이러한 컨셉트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교과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그 교과서는 학습 동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교과서일 것이다. 따라서, 좋은 컨셉트의 교과서란 학생들로부터 흥미를 유도하고 매 페이지를 열 때마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있어서의 컨셉트는 교과서와 학생을 맺어 주는 매우 중요한 관계이며, 교과서라고 하는 신부를 학생이라고 하는 신랑에게 연결시켜 주는 중매인파도 같은 것이다. 컨셉트! 잘 유도하면 연인이, 못하면 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나) 연결된 내용, 연결된 디자인

##### - 시각적 전이(轉移)

교과서도 책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도서와 다를 바 없지만 교과서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 내용을 순차적, 단계적으로 기술해 놓은 학습용 도서라는 점이다. 이를 다시 풀이하면 ‘앞서 한 학습이 뒤에 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인 것이며, 다른 도서와 달리 학습 내용의 전이(轉移)라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교과 내용의 연결을 돕는 좀더 흥미로운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하자. 애니메이션도 사실상 자세히 관찰해 보면 1초에 24 프레임의 이미지가 교체되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나약한 눈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잔상에 의한 착시를 이용한 것으로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관심 있게 살펴보면, 교과서의 페이지도 마



잘 디자인된 갑판은 페이지의 펼침면이며,  
여행객들은 그림과 글자인 것이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는 외적 체제는  
목적지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컨셉트가 살아 있어야 하며,  
포맷이라는 통일된 변화 속에서 일관되게 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치 정지되어 있는 듯하지만 사실상 내용과 더불어 같이 흘러가고 있는 연속되는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 디자인은 본문 페이지에 담긴 내용의 시선 흐름을 통제하고, 다음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를 암시할 수 있어야 하며,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간, 차원, 시간과 더불어 시선을 리드미컬하게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편집자와 아트디렉터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 (다) 변화 속의 통일 포맷

많은 여행객을 태운 호화 여객선이 있다고 하자. 이 여객선은 분명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을 것이며, 그 상상하는 목적지를 향해 일정한 항로로 꾸준히 전진할 것이다. 여객선의 갑판 위에는 다양한 개성의 여행객들이 갑판 위를 걷기도 하고, 배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도 하며, 농구를 위하여 점프를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다채로운 움직임과 변화 속에서, 여객선은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순항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교과서를 여기에 비유한다면 목적지는 컨셉트이며, 아름다운 배의 형태는 포맷(format)이다. 잘 디자인된 갑판은 페이지의 펼침면이며, 여행객들은 그림과 글자인 것이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는 외적 체제는 목적지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컨셉트가 살아 있어야 하며, 포맷이라는 통일된 변화 속에서 일관되게 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 (라) 또 하나의 공간 - 백색 공간

학습 내용인 그림과 글자는 종이라고 하는 백색 공간(white space)위에 인쇄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백색 공간은 그림과 글자라는 형태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림과 글자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바탕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백색 공간은 과연 남겨지고 버려지는 부분인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공헌하는 부분인가? 결론은 형태 못지않게 교과 내용에 공헌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는 백색 공간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침묵을 ‘말 없는 말’이라고 하듯이 백색 공간은 침묵과도 같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색 공간을 채우려고만 하면 때에 따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지금의 우리 교과서에는 침묵이 필요하다.

이제는 형태만을 중시하는 교과서로부터 탈피하여 백색 공간이 살아 숨쉬는 교과서, 이것이 진정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좋은 교과서의 조건인 것이다.

#### (마) 공간 연출의 마법사 - 레이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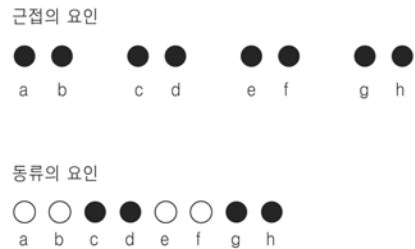
훌륭한 요리사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맛을 낸다. 왜일까?

물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요리와 차별화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식공간의 문화는 과거와 같이 식기나 조리 기구의 모양, 요리 재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었는가? 라는 물리적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테이블 위에 놓여지는 순간부터 각각의 요리 용기 속에 담겨 있는 요리의 형태, 색상, 배치, 크기, 기타 시각 심리적인 요소로부터 시식자로부터 요리의 문화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시각 심리적인 배열 즉, 레이아웃(lay-out)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과서는 어떠한가? 그동안 우리는 주어진 물리적 재료인 글자와 그림의 질적인 문제에만 연연해 오지 않았는가? 또, 이들의 연출을 통하여 시각 심리적인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학생들로부터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서의 컨셉트, 주목성을 위한 포맷, 그리고 먹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페이지 디자인으로 하여금 이들의 시선을 잡아 두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편집(編輯)이란 다양한 자료를 모아 엮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수집해 놓은 내용을 묶고, 분리하는 창의적 기술을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담겨 있는 글자와 그림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묶여지고 분리되어지는데, 이를 조형 심리에서는 ‘근접성의 요인’과 ‘군화의 요인’이라고 한다. 독일의 형태 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조형 심리에 의하면 인간의 눈은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 가능하면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공간에 둘 이상의 시각인자 요소(a, b, c, d, e, f, g, h)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인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자들과, 또는 동일한 유형의 인자들끼리 그룹핑(ab, cd,

ef, gh)되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다면 내용에 직접 관련된 그림은 다른 내용에 관련된 요소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습자는 내용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학습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그림 2).



【그림 2】 군화의 법칙

둘째, 현재의 교과서는 펼침면 페이지에서 앞페이지와 뒤페이지의 시각 흐름을 무시한 채 별개의 페이지로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앞페이지와 뒤페이지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못하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선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페이지의 펼침면을 적당한 크기로 축소하여 벽면의 좌에서 우로 연결하여 배치한 다음, 앞페이지와 뒤페이지의 시각 이동 경로를 전체적으로 구획하여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의 심리적인 요인과 이론을 교과서의 미적 구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앞으로 이 이론에 입각하여 교과서의 외적 체제를 보다 심미적이고 과학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바) 색다른 경험

— 텍스트 보기, 이미지 읽기

문자는 전통적으로 읽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림은 보는 것으로 통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는 이미지에 담긴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글자를 통하여 소리의 강약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신문의 시사 만화를 통하여 메시지를 읽고 있으며, 문자의 형상(Type-face)을 통하여 글의 느낌을 글자로 표현하여 이미지로서의 문자를 적극 활용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

또, 우리는 대화할 때 단어와 문장을 명확하게 띄어서 말하고 있는데 문어체에서도 이러한 규칙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글줄의 양끝 맞추기가 교과서의 전형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서점에 가 보자. 다양한 형태의 문자로 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이를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데, 교과서도 이제 과감한 타이포그래피의 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로서의 전통성은 지켜 나가되 기존의 보수적인 타이포그래피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다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텍스트 보기, 이미지 읽기로서의 교과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2. 제도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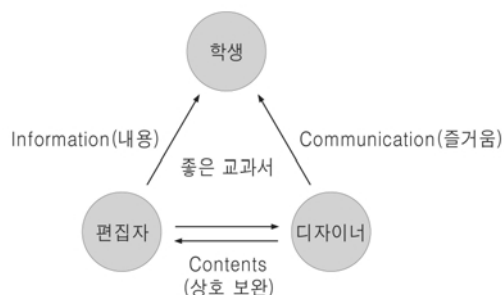
### (가) 아트디렉션을 도입의 허와 실

우리 나라 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체제가 다소 균형을 잃고 발전해 온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내용을 다루는 편집자에 의해서 외적 체제가 주도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과서의 기능이 시각적 아름다움보다는 교과 내용에 비중을 두었던 인식으로부터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의 교과서는 내용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아름다움의 가치가 묻어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이제 그 진가가 발휘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식의 가치를 다루는 편집자와 아름다움의 가치를 생산해 내는 아트디렉터

와의 만남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힘은 바로 이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대립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이 서로에 대하여 균형감을 잃을 때, 교과서로부터 문화적 콘텐츠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균형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집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 하면, 교과서의 특성상 내용이라는 콘텐츠의 핵심을 편집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집자는 아트디렉터와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항상 대화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편집자가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아트디렉터와의 대립이 시작되며,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방관할 때 아트디렉터의 독선이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아트디렉터도 편집자와의 상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과 설득의 능력이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할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트디렉션을 도입은 편집자와 아트디렉터의 교감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며, 상호 조화와 균형감을 이룰 때 비로소 좋은 교과서라는 문화적 가치가 탄생되는 것이다(그림 3).



【그림 3】 좋은 교과서 개발 과정

#### (나) 일정표의 체계적 관리

훌륭한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필요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완성시키는 교과서의 외적 체제를 위한 설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지식’을 다루는 편집자의 영역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잘 설계되어 있는데, ‘보이도록 가시화’하는 구조물의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구조물의 설계는 내용 못지않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 교과서의 외적 체제 개발에 할애되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 이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필자로부터 원고가 입고된 후부터 외적 체제에 대한 개발이 시작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좋은 컨셉트와 좋은 포맷의 콘텐츠를 기대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컨셉트와 포맷은 교과서의 외적 체제에서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콘텐츠의 핵심인데, 이 콘텐츠의 개발은 집필 초기부터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또, 보다 중요한 사실은, 시간의 투자에 비례하여 교과서의 외적 체제의 완성도는 더욱 빛난다는 불변의 사실이다. 따라서, 편집자는 아트디렉터로부터 철저한 일정 관리를 위한 일정표(schedule)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세심한 배려가 좋은 교과서의 외적 체제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Ⅳ. 결 론

이상에서 우리 나라 교과서의 외적 체제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시 내용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교과서도 문화적 콘텐츠의 하나라는 중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기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흥미와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시켜 학습 내용으로 시선을 일관되게 유도하여 소기의 학습 효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외적 체제 및 디자인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 심리를 활용한 컨셉트의 설정과 포맷 개발의 물리적 행위는 아트디렉터의 몫이 되겠지만, 추진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은 편집자와 아트디렉터가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교과서가 지식의 전달이라는 내용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개발되었다면, 미래의 교과서는 시각적이고 미적인 가치로 콘텐츠의 비중이 빠르게 이동될 것이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문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과서의 가장 큰 특성인 교과 내용의 훼손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다. 자칫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교과 내용의 가독을 방해하고, 시선을 단절시키는 무책임한 디자인은 분명 차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 관련 아트디렉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인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미래,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후손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교과서의 살아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교과서 연구

■ 글 / 허 강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총장)



## I. 들어가는 말

교과서는 학생들의 지적(知的)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며 도구이다. 그리고 그 속에 반영된 내용으로서의 문화 가치 체계는 학생의 행동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더욱이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자기의 지적 성장이나 인격 형성을 위하여 항상 기본적인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 연구의 필연성은 제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좋은 교과서가 좋은 교육의 기초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교과서의 연구·개발은 근본적으로 커다란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 관계 연구 경향은 첫째는 교육과정 연구에 집중성을 두고, 이의 결과물인 교과서와 연결시켜 논한 것이고, 둘째는 단위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논한 것이며, 셋째는 교과서의 모형 개발, 구조 및 그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이다.<sup>1)</sup>

이 글에서는 광복 후 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

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과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II. 교육과정기별 교과서 연구 내용

### 1. 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

미 군정 시대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소개나 평가에 치중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1945. 8.~1954. 4.)<sup>2)</sup>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정황이야말로 새삼스러운 지적이기조차하다. 더욱이, 보다 구체적인 접근, 예컨대 ‘미 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실업과 교과서 편찬’하는 형식으로 논의한 연구는 실제로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이 시기의 연구 개발면에 대해 ‘태동기’라고 하였고<sup>3)</sup>, 모든 면에서 그러했지만, 그 당시는 교과서 연구가 출발에 불과하였으며, 이렇다 할 만한 연구가 없었다. ‘이 시기 최초에는 교과서 연구를 내막적으로 한글학회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 이유는 잃

어버린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특히 8·15 광복 무렵의 자료가 선뜻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 시기에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sup>4)</sup>

한편, 이 시기에 중앙교육연구소가 탄생(1953. 3. 피난 수도 부산)하였으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연구 영역보다는 교육 이론, 심리 검사, 교육 정책 등으로 교육 연구 기반 구축에 힘을 쏟았다.

## 2. 제 1 차 교육과정기

제 1 차 교육과정 제정 전후의 교과서 편찬에 대한 기초 연구가 문교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교과서 편찬 발행에 대한 상례적인 행정 연구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그 후, 1959년에는 문교부 편수국에서 각 시·도 초·중학교 및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실태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물로 기록되고 있다.<sup>5)</sup>

이 밖에도 중앙교육연구소에서 1962년도에 연구한 ‘국민 학교 교과서 평가 연구’ 및 1963년도에 실시한 ‘한글의 읽기 쉬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 있다.

제 1 차 교육과정기(1954. 4.~1963. 2.)는 연구 부재의 풍토를 극복하고 초보적이거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기관이 없었고 문교부 편수관실 중심의 관 주도에 의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그 밖에는 대학이나 교육학회 또는 시·도 연구원 등에서

간헐적으로 잡지나 연구지에 교과서 연구물을 발표하는 수준이었다.

즉, 제 1 차 교육과정기에 대학이나 학회 등에서 수행한 ‘교과서에 관한 연구’를 집계한 것을 보면, 11 개 영역<sup>6)</sup>으로 나누었으며(교과서에 관한 이론, 내용·방법, 본질론, 역사론, 기능론, 유형론, 출판론, 정책론, 편집론, 국제 비교, 교육론 등), 이 중에서 교과서 정책론, 교과서 편집론, 교과서 본질론이 숫적으로 많은 영역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에 교과서 개편이나, 교과서 행정 및 고본 사용 등에 관한 정책적 과제가 많은 것이 그 배경인 듯하다. 그리고 편집론은 교과서 외래어 표기, 국어 교과서 오류 시정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였는데 이것도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3. 제 2 차 교육과정기

제 2 차 교육과정기(1963. 2.~1973. 2.)에는 문교부, 중앙교육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및 각 대학교와 각 교육자들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족(1972년 8월에 개원)되어 한국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의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이 기간에 ‘초등 학교 국정 교과서의 어휘 분석(1~3 학년)’과 국민 학교용 ‘1·2 차 소규모 시범을 위한 수업 지침서 및 배움책’ 자료 등을 연구 개발하였다.

중앙교육연구소에서는 이 기간에 ‘중학교 수학 프로그램 학습 효과의 실험 연구’를 비롯해서 연구원 전원이 참여한 ‘교과서 내용 분석과 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1969. 9. 제 55 집)가 주목된 바 있다. 이 연구는 문교부, 행정개혁조사위원회, 과학기술처, USAID 등



1959년에는 문교부 편수국에서 각 시·도 초·중학교 및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실태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물로 기록되고 있다.

이 공동 참여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관련 연구물의 집계를 보면<sup>7)</sup> 교과서의 기능론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 포함된 논제 중 가장 많은 것이 교과서의 정보 기능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 때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아졌는데, 이것은 교과서 내용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탐구력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제1차 교육과정기 때와 같은 정책론이고, 세 번째로 많은 것이 교육론이었는데, 교과 교육에 관한 이론과 지도법 등을 담고 있었다. 전체 연구물 숫자는 제1차 교육과정기 때에 비해 약 20%가 증가하였다.

#### 4. 제3차 교육과정기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1981. 12.)에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교부 편수국(후에 장학편수실로 개편)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그리고 대학이나 학회 및 시·도 교육연구원과 같은 연구 단체 등 세 부류에서 실시되었다.

문교부는 그 당시(1973~1977) 정책 개발 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교과용 도서 편찬 정책(계획)이라든지, 현행 교과서의 검토·분석 및 실험본 교과서의 현장 실험 등과

관련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서 개발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1978)하기 이전에 많은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한국교육개발원은 본격적으로 1976년과 1979년 두 차례 ‘교과서 체제의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80년에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1980년부터 개발할 초·중 교과서 연구·개발 사업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개발한 과제 중 ‘국민 학교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 때(이른바 말하는 김인정 교과서 사건이 있었던 1977년도 이후 후반기)는 제1, 2차 교육과정기 때에 비해 교과서 연구를 전문 기관에서 맡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 후반기는 교과서 연구의 기초를 닦은 정초기라 칭해도 될 듯하다.

#### 5. 제4차 교육과정기

제4차 교육과정기(1981. 12.~1987. 3.)에 문교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본 계획의 수립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 기관(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대한 연구·개발

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 같은 업무 분담은 큰 변화 없이 제 6차 때까지 이어져 왔다.<sup>9)</sup>

제 4차 교육과정기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개발한 보고서 중 규모 및 내용상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라고 본다. 이 같이 체제 개선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추진한 것은 교과서 체도를 개방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 6. 제 5차 교육과정기

제 5차 교육과정기(1987. 3.~1992. 6.)에는 한국 2종교과서협회에서 교과서 연구 전문지인 「교과서연구」 창간호(1988. 12. 28.)를 발행하였으며, 이 협회에서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10여 차례 개최함으로써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또 교과서 연구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 시기(1991. 1.)에 문교부 편수관 출신 및 현

직 편수관으로 구성된 학회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를 탄생시켜 우리 나라 교과서가 연구 발전하는 데 초석을 놓았다.

제 5차 교육과정기에 한국교육개발원이 행한 정규 연구와 수탁 및 기타 연구의 결과물은 그 양과 질에 있어 발전적이었다. 제 5차 교육과정기 중 1980년대 후반기에는 제도적인 교과서 연구 과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연구(1·2)’가 있었다.

제 5차 교육과정기 중 가장 많은 분야는 ‘교육 내용·방법’과 ‘유형론’으로 전체에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표】 참조). 이 중 ‘유형론’이 많은 것은 제 5차 교육과정기 때 편찬한 교과서 중 검정 5종에 대한 비교·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한국출판연구소 사업 추진 중 ‘한글 글자꼴(서체) 기초 연구’(1990년 발행)가 있었는데, 이것은 교과서

【표】 교과서 연구 논문 교육과정기별 집계

연구 분야 \ 교육과정기	제 4차	제 5차	제 6차	제 7차
1. 교과서 이론 : 106	22	22	41	21
2. 연구 내용 방법 : 294	35	95	110	54
3. 본질론 : 182	19	28	70	65
4. 역사론 : 154	24	43	44	43
5. 기능론 : 196	30	40	62	64
6. 유형론 : 345	47	88	122	88
7. 출판론 : 0				
8. 정책론 : 128	16	23	59	30
9. 편집론 : 75	11	19	21	24
10. 국제 비교론 : 205	17	45	95	48
11. 교육론 : 90	3	19	27	41
합계 : 1,775	224	422	651	478

※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D/B : 간략 목록 : 학위 논문(교과서) 1775건(1981~2002 초반)을 필자(허 강)가 분야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교육과정기별로 재정리·집계하였다.

의 가독성과 조형성 등에 중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좋은 연구물이라고 해석된다.

## 7. 제 6차 교육과정기

제 6차 교육과정기(1992. 6.~1997. 12.)에도 제 5차 교육과정기에 제기됐던 교과서 검정 제도(주로 국정제를 검정제로 바꾸는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여론이 지배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교과용 도서인 「국민소학독본」을 발행한 지 100 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였고, 이 시기에 한국교과서연구소(1992. 5. 11.)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족(1998. 1. 1.)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기에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해서 개발한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교과별 교과용 도서 개발 연구(I·II·III)’가, 또 ‘고등 학교 교과별 국가 수준 평가 기준 개발’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연구물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30 년사」에서는 ‘역사에 남을 귀중한 자료’라고 자평하고 있다.

【표】에서 연구 논문 숫자는 651 건으로 제 5차 때보다 1.5배가 증가하였다. 제 4차 때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연구물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유형론’ 중에는 검정 교과서 8종에 대한 유형 분석이 주된 과제였다.

다음으로 한국 2종교과서협회가 발행한 「교과서연구」지에 게재한 교과서 연구 과제의 수록 내용(1988. 12.~1998. 5. 기간)을 보면, ① 교과서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② 교과서 개선 등 실용적 기법 연구, ③ 교과서 출판업계(검정) 분야 연구 등이었다.<sup>9)</sup>

「교과서연구」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는 판형, 지질, 쪽수, 글자(서체), 색도, 사진·삽화 등 요인별 연구 과제가 많았다. 그리고 체제

연구 중 단위 체제라든가, 내용 조직·체계화 등 편집 기법에 관련된 것이 많았는데, 이것은 교과서의 체제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 8. 제 7차 교육과정기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12.~현재)의 교과서는 무엇보다 IMF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998년 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을 열어 본격적으로 교과서 연구 사업에 들어갔으며, 교육부의 검인정 업무를 수탁받아 추진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한 연구물을 총괄해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각 교과별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교과용 도서 모형 개발 연구
-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 초등 학교 1종 도서 체제 개선 연구(15종)
- 제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수준별 자료 개발
- 검정 교과서 업무 체제 개선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sup>10)</sup>에서는 교과서에 관한 조사 사업으로 제 7차 교육과정기에 행한 연구 과제물은 50여 종에 달한다. 이 연구물은 크게 체제, 편찬, 발행, 정가, 저작권, 국·검정 제도 등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과제들이다.

교과서연구재단 연구물 중에서 ‘한국 교과서 목록 작성’, ‘교과서 띄어쓰기 용례 조사’, ‘교과서 백서’,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한국편수사연구(I),(II)’ 및 ‘한말 및 일제 강점기의 교과

서 목록 수집 조사',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기초 연구에 속하는 것 외에 다른 과제는 제도 개선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으로 인해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며, 국민들의 역사 인식이나 교과서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 9. 교과서 연구 내용 요약

이상과 같이 교과서 연구는 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는 연구다운 연구물이 없었다. 이것은 기초 연구의 토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과서의 저작·발행에 치중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제 1차 교육과정기에는 문교부에서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정책 연구 자료 수집에 힘을 쏟았으며, 일부 '교과서 평가 연구'와 '한글의 읽기 쉬움의 연구' 등이 있었고 집계에 따르면 교과서 정책 연구와 편집론 등이 우세하였다. 제 2차 교육과정기 때부터는 교과서 연구가 점차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집계에 따르면 교과서 '기능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책론' 등으로 나타났다. 제 3차 교육과정기부터는 기존 연구자 이외에도 교육 대학원생에 의한 연구가 점증되었는데, 이들의 주제는 주로 교과별 내용 연구 영역이 우세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기 때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과서 연구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그 내용이나 양이 향상되었고, 대학이나 학회 등의 연구는 교과서 '유형론'과 '교과서 내용·방법' 등이 주였다. 제 5차 교육과정기 때부터는 「교과서연구」 전문지가 발행되었으며, 이 시기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과서 연구는 계속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기 때에는 교과서 연구 영역이 '기능론', '역사론'이 많았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교과별 교과서 개발 연구(I·II·III)' 등이 있었으며, 제 7차 교육과정기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 연구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 기여를 하였고, 한국교과서연구재단도 교과서와 관련된 정책 및 기초 연구를 추진하여 이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 Ⅲ. 맺는말

광복 60주년을 맞으면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즉, 교과서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현재에 비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연구와 중·장기적인 연구 내용(과제)을 선정해서, 그 동안 연구한 경험이나 노하우(업적과 성과 등)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어야 한다.

단기적인 연구 내용은, 우선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연구·개발에 도움되는 과제를 선정·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체제, 즉 자기 주도 학습형 교과서 편찬이나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의 교과서 구성(편찬)이라든가, 또 수시 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밖에도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연구 영역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연구 내용이나 그 방법에는 정보화·국제화 및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다양성과 개성적인 것의 선택 기회를 확

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 목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교과서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제를 가지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독일의 ‘게오르그-엑케르트 국제 교과서 연구소’, 노르웨이의 ‘IARTEM 협회’, 일본의 ‘교과서연구센터’ 등과 유대를 맺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교과서 발전에 뿌리가 되는 기초 연구가 심화되지 않고서는 교과서 연구의 하부 구조(infrastructure)가 튼튼하게 구축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부 구조의 구축에는 교과서에 관한 본질론, 역사론, 교육론, 출판론,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체제와 학습 내용 등의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 교과서 연구는 그 동안 미개척 분야이거나 다소 소홀히 취급했던 것들, 즉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의 명시 기법, 그리고 문장 구조와 일러스트의 교육적 가치, 전자 교과서(쓰기 교재용 컴퓨터 보조물, 마이크로 컴퓨터상의 본문 표현, 텔리텍스트 등), typography(marginalia, 지물 및 전자 도서에서의 heading 기능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보기를 들면, 다종 다양한 정보 미디어에 둘러싸인 학생들에게 교과서 체제를 어떻게 꾸며야 학습 의욕을 북돋아 주고, 또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의 질적 향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라든가 ‘멀티미디어 시대의 교수·학습 자료 구성과 이용에 관한 연구’(‘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체제와 교육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와 같은 것 등이 있다.

결으로, 교과서 연구의 관점이나 연구 목표

가 학생(user)이어야 하고, 교과서 연구 및 편찬시에는 디자이너, 편집자, 교사, 교수 등과 그 밖의 모든 이들(production & utilization)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과서 연구의 주역자들에게는 자율성과 전문성, 부단한 연구 추진력 등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들 주역을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제도 구축되어야 함은 당연한 연구 조건의 하나이다. 

- 1)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1991, pp.16~17.
- 2) 허 강 외. 「한국 편수사 연구 I」.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 3) 한중하 외.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박봉배 집필분)」. 한국교육개발원. 1982, p. 56.
- 4) 홍용선. 「광복 후의 신교육 운동」(미 군정기 교육에 관한 자료 및 연구 논문). 대한교과서(주). 1991, p. 1.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여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에 있었던 일들을 상고할 만한 문헌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어, 이 시기의 교육의 양상을 제대로 밝혀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 5) 주체명 : ‘전국 초·중·고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서’(조사 실행 기관 : 중앙교육연구소)
- 6)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1991.
- 7) 허 강 외.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변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 8) 한국교육개발원 사업 중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사업이 1998년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족되면서 이 사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옮겨 가고 여기에 ‘검인정 사업 지원 업무’가 추가되었다.
- 9) 허 강. 「교과서 연구 내용·방법의 발자취」. 교과서연구 31호. 한국교과서연구소. 1998, p. 52.
- 10)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1992년 8월 12일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교육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체도에 관한 국제 비교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 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 미국 텍사스 주의 교과서 제도

■ 글 / 이춘식(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보·국제협력부장)



## 1. 인정 과정의 개요

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인정 제이다. 미국의 인정제는 각 교과서 발행자가 먼저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단위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인정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주 단위 인정제 (statewide adoption)와 주 단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지역 인정제 (local adop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역 인정제는 주 정부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른바 자유 발행제와 유사하며 이 제도를 실시하는 주를 개방 지역 (open territory)이라고 부른다.

주 단위 인정제를 행하는 주는 22개 주, 지역 인정제를 행하는 주는 28개 주에 이르는데, 20세기 초 이래 각 주별로 교과서 제도는 발행 제도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텍사스 주는 수업 자료 (instructional materials)를 검정하는 22개 주 중의 하나이다. 텍사스 주의 헌법과 주 교육위원회 (State Board of Education)가 교과서 인정 과정을 통제한다.

수업 자료는 순환 심의제에 따라 매 8년마다 심의한다.

## □ 일치본과 비일치본

텍사스 주 교육법 제 31 조는 수업 자료의 인정 목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공한다. 일치본 목록은 주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 즉 필수 지식과 기능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을 모두 포함하고 내용의 사실 오류가 없으며 주 교육위원회의 심의에 충족되어 통과한 교과서들이다.

이에 반해 비일치본은 주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인 필수 지식과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50% 정도는 충족하고 사실 오류가 없는 교과서들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과의 일치본 (Conforming)과 비일치본 (Nonconforming)으로 분류하여 선정한다. 일치본 (Conforming Instructional Materials)은 주 교육성의 교육과정이 제시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지식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을 100% 반영하여 저작한 교과서로 기초 교과목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다.

기초 교과목 (foundation)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세계사, 미국 헌법, 지리이며, 기초



교과목의 발행 주기는 6년, 연간 심의 과목 수는 전 교과목의 1/6 이하이다.

비일치본(Nonconforming Instructional Materials)은 교육과정이 제시한 내용을 50%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재량으로 내용을 구성한 교과서로 교양 교과목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다. 교양 과목(enrichment)은 외국어, 보건, 체육, 미술, 경제, 직업, 공학 응용 등이며, 교양 교과목의 발행 주기는 8년이다.

#### □ 새로운 수업 자료의 평가와 인정

출판사로부터 새로운 수업 자료가 있을 때 주 교육위원회는 심의 공고(proclamation)를 통하여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 공고에는 교과 영역과 일정 및 텍사스 필수 지식과 기능(TEKS; Texas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를 출원할 출판사는 주 교육부, 20개 지역 교육청, 주 교육국장이 임명한 교과서 검토위원들에게 완성된 검토본을 제출한다.

교과서 검토위원들은 TEKS를 충족시키는 지, 그리고 내용상의 오류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국장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교육국장은 일치본인지, 비일치본인지, 아니면 부적격인지를 추천하는 예비 보고서를 작성한다. 텍사스 학부모들은 출원한 수업 자료에 대한 평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최종 인정 2개월 전에 열린다.

교과서 검토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 출판사가 제출한 해명서 및 교과서 인정 담당자의 의견 등을 숙고한 후에, 교육국장은 최종 판정 결과 보고서를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학교 지역구청에 보급되기

전에 수정해야 할 내용 오류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 교과서의 선정과 보급

출판사는 모든 교육구청에 새롭게 인정된 수업 자료의 설명서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견본 자료의 배포와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

지역의 교과서 선정 위원회는 새로운 수업 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다양한 교과를 위하여 학교 지역청은 인정되지 않은 수업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도 있다. 새로운 수업 자료를 주문하면 공급소에 전송되고, 지역 공급소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의 등록 학생 수에 근거하여 공급한다. 수업 자료를 요청하고 대개 7일 이내에 공급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 주 교육성 교육위원회는 심사 최종 보고서를 접수한다.
- 교육위원회는 선정된 최종 교과서 목록(adoption list)을 발표한다. 과목당 심사 합격 종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체로 5종 이내이다.
- 합격한 도서의 출판사는 지역 교육 센터에 전시본을 우송한다.
- 심사 결과에 대하여 출판사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주 교육성은 해명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점자, 특수 교재와 청각 수업 자료

주 교육위원회는 시각 장애자나 약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수업 자료를 무료로 보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역청에서는 공급소

에 점자(braille)와 약시자를 위한 큰 글자로 만들어진 자료를 주문한다. 또, 시각 장애인 교사들을 위한 교사용 수업 자료도 동시에 제공된다.

#### □ 교과서 관련 용어의 규정(주 교육법)

- 전자 교과서 : 전자 매체를 통하여 학습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양방향 비디오 디스크, 자기 매체, CD-ROM, 컴퓨터 코스웨어, 온라인 서비스, 전자 미디어, 또는 정보 전달 기구 등을 의미한다.
- 출판업자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나 개발자, 또는 전자 교과서 보급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교과서 : 서책, 체계적인 수업 자료, 책의 모음 자료,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충 자료, 학습 과정에 기여하는 자료, 전자 교과서 등을 의미한다.

## 2. 교과서 인정에 출원 방법

일반적으로 텍사스 주의 인정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텍사스 필수 지식과 기능(TEKS)이라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교과에서 TEKS의 최소 50%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보조 교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인정 심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판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야 한다.

- 텍사스 주 교육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 순환 심의 제도(adoption cycle)를 검토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즉, 특정 교과와 자료를 언제 출원해야 할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출원하고자 하는 심의 공고 책자를 얻

어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이 공고는 대개 18~24개월 전에 제공한다.

- 출원할 교과에 해당하는 TEKS를 철저히 숙지하여야 한다.
- 출판사는 교과서 제작 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에는 내용 오류가 없어야 한다.
- 공고된 대로 출원 일자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심의 공고 기한에 따라 수업 자료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출원 출판사의 준비 사항

출원 출판사는 아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주 교육성 교과서 행정과에 지정한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가) 표지(서식)

(나) 기술적 측면

- 상세한 사업의 목표, 필수 요건의 실천 의지
- 텍사스 주 교육과정의 기본 지식과 기술의 이해
- 텍사스 주의 교과서 채택과 공급에 대한 법규 이해
- 출판사의 컴퓨터 및 기술 관리 능력

(다) 관리적 측면

- 교과서 개발 관리 능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와 정보 제공
- 출판사의 기구 조직표
- 담당 직원의 전문성 및 자격에 관한 상세한 이력 사항
- 하청 회사의 교과서 관련 사업 추진 경력(하청을 주는 경우)

(라) 업무 추진 계획

- 월별 교과서 개발 업무 추진표
- 담당자별 업무 분담 내용
- 서식에 의한 상세한 예산 내역 (합리적이며 현재 시장 가격과 일치하여야 함.)

(마) 회사, 개인, 비영리 기관의 재무 확인

- 최근에 감사받은 재무 확인서 또는 공인 회계사의 재무 확인서
-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자료

(바) 제안서 양식 및 제출에 따른 필수 조건

- 제안서는 8 1/2×11 용지 30 매 이내로 작성
- 스테이플로 상철 또는 좌철하거나, 3-링 바인더를 사용
- 제안서에 특이한 장식 및 표시 등이 부착되어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심의 위원들이 제안서를 주 교육성에 다시 돌려보내는 데 운반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사) 기 타

- 제안 요구서의 내용을 일부만 제시하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 주교육성은 제안서를 거부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제시된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에 요구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다.
- 주 교육성은 가장 우수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제안서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
- 마감 일자가 지난 후에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추가나 대체가 불가하다.

- 주 교육성 업무 담당자는 사업 계획, 사업 활동,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개발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검토 기간은 한 건당 10 일이다.

### 3. 교과용 도서 심의(textbook review)

(텍사스 주 교육법 제 31조)

(가) 심의위원 임명

- － 학교, 교육청, 주 정부, 민간, 학부모회 등 여러 기관의 추천을 받은 인적 자원 중에서 전문성, 영역,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주 교육성 장관이 최종 임명(교육 위원회의 동의 요함.)

(나) 심의회 구성 : 약 300 명 (2004년의 경우)

(다) 주 교육성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 (State Textbook Review Panels) 운영

(라) 심의 절차 (소요 기간 : 약 4 개월)

- ㉠ 심의위원 임명
- ㉡ 심의할 교과용 도서 배정
- ㉢ 교육과정, 심의 방법, 심사표 등에 관한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과목별 심사 문항은 100 항목 (checklist 형식)
-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 기간 : 1 주일
- ㉣ 오리엔테이션 내용 : 심의위원의 책무성, 심의 과정 관련 법규 및 심의 일정, 교육과정, 오류 식별과 수정 지시에 관한 사항, 멀티미디어 운용, 행동 지침과 뇌물

- 방지 법규에 관한 사항 등
- ㉔ 심의위원 대인 접촉 금지 준수(텍사스 행정 법규 시행령 제66조 45항)
  - 심의 기간 중 지정된 업무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교과용 도서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의 대인 접촉을 금지한다.
  -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인을 만나거나, 정보를 구할 때는 교육성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한다.
  - ㉕ 개별 심의
  - ㉖ 개별 심사 표 제출
  - ㉗ 제출 자료의 종합(주 교육성 교과서 행정과 직원)

- ㉘ 예비 제안서 접수(출원자로부터)
- ㉙ 예비 제안서에 관한 자료 보완 및 소명 기회 부여
- ㉚ 심사 최종 보고서와 수정 지시 내용을 주 교육성 장관을 경유하여 주 교육위원회로 송부

인정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에는 좋은 교과서라는 교육적 이유와 시장성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맞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위해 미국 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교과서 제작 9단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1

【표】 미국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 단계

작업 단계	내 용
① 제 1 단계(개념화 단계)	교육 관계의 연구 동향, 재정 투자 및 견적, 시장 조사, 편집 조사 및 재정 에 대한 계획 단계
② 제 2 단계(교육 프로그램 계획 단계)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세운다.
③ 제 3 단계(교육 프로그램 개요 작성 단계)	교과서 편집자, 저자 및 협조자가 함께 단원을 개발·작성한다.
④ 제 4 단계(편집 단계)	저자가 교과서 내용을 집필하고, 이것이 편집되면 현장 검토(field test) 후 에 다시 편집한다. 이 때, 디자이너에 의한 도판 등의 레이아웃이 정해진다.
⑤ 제 5 단계(제작 단계)	교과서의 내용을 조판한다. 삽화, 지도, 도표 등의 원판이 제작된다. 사진 도 준비되고 최종 편집이 완료된다.
⑥ 제 6 단계(인쇄·제책 단 계)	인쇄·제책 기준에 따른다.
⑦ 제 7 단계(시장 조사와 판매 단계)	학교측 교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또는 전시회에 출품·전시한다.
⑧ 제 8 단계(출판 후 조사· 연구의 단계)	출판사는 교사가 새 교과서를 가지고 새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수·학습 할 때 전문적 협조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모니터한다.
⑨ 제 9 단계(개정 등 단계)	시장 동향, 연구 성과 등에 따라 체제를 바꾸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가감한다.

※ 텍사스 주의 인정 제도 관련 홈 페이지 : [www.tea.state.tx.us/textbooks/adoptprocess/](http://www.tea.state.tx.us/textbooks/adoptprocess/)

# 초등 수학 교과서 연구·개발의 실제

## I. 시작하는 말

제 6 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6 호(1992. 9. 20.))에 따른 수학과 1 종 도서(수학, 수학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의 사용은 1995년 3월 1일부터는 1·2 학년, 1996년에는 3·4학년, 1997년에는 5·6 학년이 계획되어 있었다. 제 6 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의 이름을 ‘산수’에서 ‘수학’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제 3 차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었다.

교과 내용에 대하여는 제 3 차 교육과정에서 수학의 현대화에 힘입어 학문 중심, 집합의 이론을 바탕으로 변화를 시도했었으나 많은 학자, 학부모들 간에 학습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해 제 4 차, 제 5 차에 걸쳐 일부 수정·보완되었으나, 계속되는 여론에 따라 제 6 차 교육과정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연령별 학습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학습 수준과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기초 학습 능력 정착, 흥미를 전제로 한 생활 중심, 창의력 신장을 위한 문제 해결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교과서도 교육과정 정신에 따라 기초 학습 능력 정착을 위한 학습의 개별화, 자기 주도적 탐구 학습이 되도록 선수 학습 확인과 보충, 실생활 문제의 도입, 구체적 조작 활동의 강화 등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썼다.

## II. 초등 수학 교과서의 연구·개발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편성되었으나 교과서는 활용의 편의상 1 학기용과 2 학기용으로 분책하여 편찬하였으며, 교육과정 내용을 담은 ‘수학’책과 이를 보조하는 ‘수학 익힘책’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수학 익힘책’에는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평가, 보충 내용을 다루었고, ‘수학’책에서 지면 관계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과 방법을 보완하였다.

### 1. 수 학

가. 쉽고 재미있는 학습을 위하여 학습 단원과 학습 요소 도입은 생활 주변의 것이나, 경험했던 일의 내용



■ 김재광(金在光) 재능교육(주) 자문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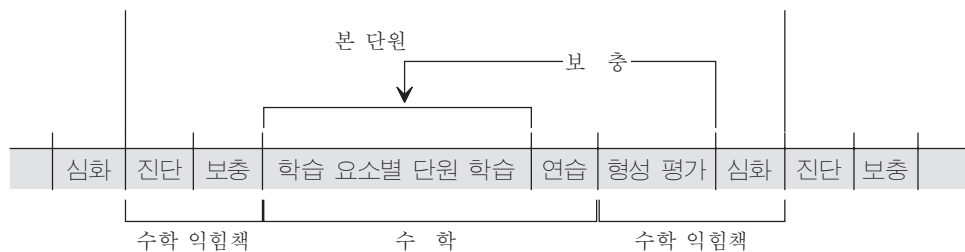
을 중심으로 학습 소재를 선정하고, 본 내용과 관련된 표, 삽화를 충분히 제시하려고 했다. 외국의 몇몇 아름다운 교과서의 편집 디자인을 보고 모자이크 형태, 만화적인 것으로 삽화의 변화, 여백 처리 등을 시도했으나 기술과 예산 부족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등 만족할 수 없어 종래의 방법으로 2류 화가에 의뢰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나. 기초 학습 능력의 신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예시와 연습, 기초 계산 능력 숙달을 위한 내용으로 편성에 힘썼으며, ‘수학 익힘책’에서 보충하였다.

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수학적 사고 활동 문제 해결 학습을 위하여 책(학기)별 2개의 단원을 할애하여 책 중간 단원에 ‘여러 가지 문제(1)’을, 마지막 단원에는 ‘여러 가지 문제(2)’를 배정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1)의 단원에는 교육과정 학년별 관계 영역에 제시된 내용으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전략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여러 가지 문제(2)의 단원에서는 각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각 단원은 학문 중심의 단원이었으므로, 학습이 체계적이기는 하나 실생활은 연산, 도형, 측정, 관계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 시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 요점, 중요한 공식, 도표 등에는 색도를 쓰고, 또 공간 처리 등을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게 편집 체제를 개선하였다.

마. 단원 학습의 전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선수 학습 진단, 진단 결과에 따른 보충 학습, 학습 요소별 내용 전개, 연습, 단원 학습 평가, 평가 결과 결론 부분 보충, 단원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화 학습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수학’과 ‘수학 익힘책’을 하나로 보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단원 학습의 전개

학습 요소별 전개는 학습 요소와 학년에 따라 과정의 일부가 생략되기도 했으나, 과제 파악(생활에서 도입), 해결 방안 탐색(구체적 조작), 해결 방법 검증, 검증된 해결 방법 적용(생활 문제), 응용 등으로 하였다.

## 2. 수학 익힘책

가. ‘수학 익힘책’은 보조 교과서로서 ‘수학’책의 지면 부족 관계로 개념, 원리,



법칙 등을 다루는데 부족했던 내용이나 방법을 보충하고, 개별화를 위한 수준별, 능력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초 계산 능력 숙달, 수학적 적용이나 사고 활동이 가능한 교재가 되도록 다양화하였다.

나.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실생활 문제를 많이 다루려고 했으며, 과거에 없던 게임, 퀴즈, 퍼즐, 이야깃거리를 제공하여 흥미와 창의력 신장에 과감한 시도를 하였다.

다. 개별처 방식 완전 학습을 위하여 각 단원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단원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선수 학습 내용에 대한 진단 평가(얼마나 아는지 알아보자) 문제를 하여 결손이 있는 학생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학습(보충하여 익혀 보자) 문제를 하고 본 학습을 할 수 있게 편성하였고, 단원 학습이 끝난 후, 본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의 성취도 평가(배운 것을 알아보자) 문제를 하여 결손이 있는 학생은 본 단원의 학습 내용 중에서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보충 학습을 하여 성취가 되었을 때 다음 학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단원 끝에 심화 학습(더 공부하여 보자) 문제를 주어 단원 학습이 모두 성취된 학생이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 교육을 고려하였다.

### Ⅲ. 교과서 연구·개발시 느낀 점

#### 1. 교과서 연구·개발 기관의 지정

교과서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이 마땅치 않았다. 즉, 지난날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이 연구 전문 기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기관이 없어 특정 교수를 중심으로 대학에 ‘1 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하게 하고 개발 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교과서 연구·개발을 주 업무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학교 업무와 교과서 업무를 겸하게 되어 교과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없었고, 개발에 따르는 자료 수집, 연구·개발, 검토·수정, 기타 회계 업무까지 개발 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등 능력의 한계가 있어 충실한 교과서를 생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교과서 연구·개발의 과다한 업무 분산을 위하여 본 교과서 ‘수학’과 ‘교사용

“

연구·개발 기관 지정을 특정 교수를 중심으로 정하다 보니 교과서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연구·개발 기관이 해체되고, 책임 교수 또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등 교과서 사용 중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

지도서'는 '서울교육대학교 1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책임자: 유병림)'에 보조 교과서인 '수학 익힘책'은 '한국교원대학교 1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책임자: 정창현)'에 지정하였으나 개발 기관이 나뉘어서, 책임자가 다르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업무 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내용 구성이나 진행상에 차질도 많았다.

5·6학년용의 경우는 서울교육대학교 유병림 교수의 퇴임으로 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려워 업무량이나 지역적으로 서울과 떨어져 업무 추진이 어려워 '한국교원대학교 1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에 모든 도서를 연구·개발 기관으로 지정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개발 기관 지정을 특정 교수를 중심으로 정하다 보니 교과서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연구·개발 기관이 해체되고, 책임 교수 또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등 교과서 사용 중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 2. 교과서 연구·개발의 양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진은 전과 다르게 집필 책임자는 교수였으나 실제 집필에 참여하는 집필진은 국민 학교 교사였다. 교과서 집필에 경험 있는 집필자도 있었지만 처음 참여하는 집필자가 많아 시행 착오, 이론적 배경 등의 어려움이 있는 데다, 1년에 연구·개발되는 교과용 도서가 실험용 2개 학년 1·2학기 12권, 정본 2개 학년 1·2학기 12권, 모두 24권으로 과다한 양이었다. 그리고 모든 집필 교사가 학급 담임을 맡고 있어 야간과 토·일요일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었으며, 협의 시간, 피로 등으로 힘이 들었고, 작업·협의 장소 또한 마땅치 않아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 3. 교과용 도서 심의와 과다한 업무

과거에는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 대부분이 교수 중심이었으나 제 6차 교과서 심의위원은 대학 교수와 국민 학교 교사 반반이 위촉되었다. 그리고 심의위원 모두가 현직에 있어 심의는 오후 2시 이후나 토요일에 하게 되어 심의할 내용에 비하여 시간 부족으로 밤늦게까지 하게 되었으며, 지방에서 참여한 위원은 중간에 나가고, 예산에 없는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컸다.

심의 장소 또한 섭외가 어려워 대학의 일정을 피하여 사용 허락을 거쳐 활용하였으며, 그것도 어려워 옛 국정교과서주식회사(서울 특별시 대방동) 회의실을 협조받아 활용하는 등 이 같은 여건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어려워 많은 고생을 했다.

심의해야 할 도서는 수학, 수학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로 실험용, 정본을 합쳐 1년에 24권 2회 48권을 심의해야 했으며, 심의료는 책당 1회 5만 원이었는데, 이런 낮은 수당은 사명감 없이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모든 것을 관장해야 하는 교육부 편수 담당자는 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특수 학교 교과서(지체 부자유, 정신 지체, 시각 장애, 청각 장애)까지 동시에 연구·개발하였으며, 교과서 인쇄는 옛 국정교과서주식회사(충청남도 연기군 내판리)에서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동분서주 내 자신을 의심할 만치 엄청난 업무량이었었는데 별 탈 없이 연구·개발·보급되었음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 4. ‘교과서 내용이 어렵다’는 여론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교과서를 편찬하였는데, 교육부 장관(김숙희)실에서 수학 교과서의 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나와 이에 대해 해명하기에 힘이 들었다.

즉, 한국과 일본 교과서는 초등의 경우는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고등 학교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어려웠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는 북한은 초등 학교가 4학년까지이므로 남한 5·6학년 내용이 북한에서는 4학년에 더 많이 취급되고 있었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초등 학교에서는 필자가 현지 출장에서 확인한 결과 교육과정상으로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학년 관계 없이 수준에 따라 개별 학습을 하고 있기에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상황을 장관 등에 보고하였다.

#### Ⅳ. 맺는 말

앞으로 교과서의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 주기적으로 전면 개편이 아닌 수시로 필요에 따라 검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교과서 연구·개발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서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을 위하여 교과 및 교육 전문가에 의하여 연구·개발되고, 수요자가 선택·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 당시 수학 교과서의 연구·개발 책임자이셨던 유병림 교수, 정창현 교수와 교과용 도서 집필진, 심의진 등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1993년~1995년 수학과 편수관〉

농업 전문 교과서 편찬 업무의 회고



■ 저자 / 정진영 (수원대학교 교무처장 겸 교무처장) (박사)

## I. 들어가는 말

제 6 차 교육과정기(1992. 6.~1997. 12.)에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 등을 규정하는 법령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97. 8. 22., 대통령령 제 8660 호)이었다. 이 규정은 제 3 차 교육과정기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제 6 차 교육과정기까지는 14 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제 6 차 교육과정기 때는 9 차부터 14 차까지 여섯 차례 개정되었다. 교과서 편찬 제도에서 농업계 교과용 도서는 1977년도 이후, 제 6 차 때까지는 1 종 도서(국정 교과서)만 있었을 뿐, 2 종 도서(검정 교과서)는 없었다.

제 6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은 1993년 2월에 편찬 계획 수립 및 편찬 위탁을 시작하여 여러 편찬 과정을 거친 다음, 1995년 3월에 초·중 학교, 1996년 3월에 고등 학교(인문계)의 순으로 그 신·개편본이 각각 적용되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 학교는(인문계 고등 학교와 다르게 그 밖의 편찬·발행이 앞당겨졌는데, 농업계의 예를 들면, 1993년에 4 책, 1994년에 18 책, 1995년에 26 책, 1996년에 13 책 등이 계획에 따라 신·개편으로 발행되었다. 즉, 제 6 차 교육과정기에 신·개편된 농업계 전문 교과서는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1992. 10. 30.)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로서, 편찬 기관은 거의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 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였다.

편찬 기관은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과서 편찬은 계열별(농·공·상·수·가정 등)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그 체제나 적용 연도가 비슷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 예로서 편찬 기간은 거의가 1 년간이었고, 특수한 과목은 2 년 간도 있었다. 외적 체제는 판형이 국판에서 4×6 배판으로 변경 과정에 있었고, 색도는 상업계 몇 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단도(monochrome)이고, 종이는 미색 중질지 70 g/m<sup>2</sup>였다.

## II. 농업 교과서 편찬 등

### 1. 교과서 편찬 지침

제 6 차 교육과정기에 편찬되는 농업계 전문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1종 도서를 편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농업 교과서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적합하게 편찬하는 것이 그 주요 방침이었다. 특히, 제 6차 교육과정기 때부터 강조하고 실행에 앞서야 한다는 ‘교과서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다시 말해, 그 동안의 교과서는 ‘교과서관’이나 ‘교과서 진술 형태’, ‘단원 전개 체제’,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등에 구태의연하였기 때문에,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과서’는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바람직한 교과서상이었다.

또, 제 6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서 편찬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여기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연계시키는 주된 교육 자료로서의 교과서 편찬을,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 편찬을 의식하고 구현하는 데 힘써야 했다.

이 밖에도 창의력과 사고력 및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 편찬을 위해 단원 전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실용성과 유용성을 중시해야 할 농업계 교과서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자, 집필자, 심의자 등과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

## 2. 집필상의 유의점

제 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의 체제는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교육부

【표】 제 6차 교육과정기의 실업계 교과서 제도 개요

교육과정 유형	교과서 제도			특 색
	관련 법규	국·검인정 교과서 제도	편찬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유형별 교육 과정</li> <li>- 고등 학교 교육 과정 (1992. 10. 30.)</li> <li>- 공업계 고등 학교 「2·1 체제」 교육과정 (1997. 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li> <li>· 개정 내용 (1996. 11.) :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외에 음반, 영상 저작물 등 보완 교재를 포함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종, 2종 및 인정 교과서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6차 교육과정 목표 달성</li> <li>·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1992. 8. 29.) 제정</li> <li>- 체제의 범위 : 판면 구성, 여백 처리, 글자 크기, 판형, 자간, 어간, 행장, 행수, 지질, 색도, 판면 활용 등</li> <li>· 1995. 1. 19. 폐지</li> <li>- 폐지 이유 :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여 창의, 자율, 경쟁을 통한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폐지함(교육부 발표).</li> <li>·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하고 서술한다.</li> <li>·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학습 내용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게 구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 적용</li> <li>· 자율 학습에 도움이 되는 체제로 교과서 편찬</li> <li>· 공업계 고등 학교 「2·1 체제」 구현을 위한 교과용 도서 개발</li> <li>· 판형이 국판에서 4×6배판으로 바뀜.</li> <li>- 1993년도 : 국판 + 4×6배판화됨.</li> </ul>

고시 제 1992-13 호, 1992. 8. 29.)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집필상의 유의점’의 체제에 관한 사항은 제 5 차 때에 제시했던 유의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다.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과용 도서의 편찬·집필 및 검인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을 정하여 편집·인쇄·제본 등의 준거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집필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 6 차 교육과정기의 체제 요인에는 제 5 차 때에 비해 뚜렷하게 변화된 것이 없었다. 다만, 과거에 없었던 체제 기준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인 민주화, 개방화, 국제화 등에 역행하는 교과서 제도로 이행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우려되기도 하였다. 그 후, 이 체제 기준은 1995년 1월 19일자로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제 기준이 있으면 도리어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과 교육계 및 출판계에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한 형편이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자습서가 필요 없고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에 그 체제 도입을 권장하기도 했으나, 교육부가 의도한 대로 그의 체제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단순히 판형과 쪽수, 내용 자료 등을 늘리고, 보통 자습서에 수록되는 내용 중 일부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식의 변화만으로는 자율 학습형 교과서의 본래 의미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 밖에도 ‘집필상의 유의점’에는 저작권 관련 법령의 준수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한 일이 있었다. 교과서에 게재되는 국민교육헌장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이를 교과서 속표지 앞에 게재하던 것을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시대 상황에 대처하였다.

### 3. 편찬 업무 추진

농업계 전문 교과서는 단년도 간 편찬 도서와 2 개 연도 간 편찬 도서가 있었다. 단년도 간이든 2 개 연도 간이든 편찬 계획을 수집해서 교과서를 적용하는 과정은 차이가 없었다. 즉, ① 계획서 제출, ② 원고 집필·삼화·사진 제작, ③ 원고본 제출, ④ 원고본 심의, ⑤ 수정·보완, ⑥ 개고본 심의·수정·보완, ⑦ 현장

“

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보통 1년에 몇 책을 편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나 10여 책 이상으로 그 양이 많아지면 그의 사무 절차 등에 많은 시간과 신경이 쓰여졌고 치밀한 계획과 실행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었다.

”



검토, ⑧ 결재본 제출, ⑨ 적용 등으로 편찬 발행하였는데, 단년도 간이든 2개 연도 간이든 교과서 편찬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므로, 언제나 바쁘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생활이었다.

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보통 1년에 몇 책을 편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나 10여 책 이상으로 그 양이 많아지면 그의 사무 절차 등에 많은 시간과 신경이 쓰여졌고 치밀한 계획과 실행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팀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좋은 팀을 구성하는 데에는 간단하게 인적 구성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제 6 차 교육과정기인 1995년도 보조금을 보면, 교과서 원고료는 쪽당 6,000 원(지도서는 5,500 원), 개고료는 쪽당 2,000 원(지도서는 같음.), 삽화료는 단색 국판 매당 19,000 원, 사진 작품료는 단색 실사판 매당 17,000 원, 표지 도안료(국판) 책당 30,000 원, 회의 수당 1인 30,000 원, 편찬 추진비 책당 600,000 원 등으로 교과서 편찬 보조금은 국가 예산 부족으로 언제나 집필자, 삽화가, 심의자, 검토자로부터 ‘부족하다.’는 말을 듣기 일쑤였다. 이럴 때에는 ‘교과서 편찬의 명분이나 공익성’ 등의 얘기로 그들에 사기를 올려 주기도 했다.

#### 4. 농업 교과서 편찬 후기

제 6 차 교육과정 중반 이후에 접어들 무렵 제 7 차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서서히 있으면서 교과서 개편 작업에 시간적인 압박을 점진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 편수 업무의 흐름을 맞춰 가며 몇 개월째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함께 하던 김진석 연구관(현 인천계양고등학교 교장)이 갑자기 재일 한국 대사관 교육관으로 발령이 나게 되어 참으로 난감하고 당혹스러웠다.

더군다나 후임 발령이 빨리 나지 않는 탓에 혼자서 신·개편·수정 등 함께 98 책을 마무리하기에는 심신에 한계가 있었다. 그 당시 편수국에 몸담았던 모든 편수관이 격무에 시달려서 얼굴색이 누렇게 변했고 눈 주위가 늘 부어 있는 것 같았다.

그 당시 동료 간의 아침 인사는 “건강 조심하십시오!”였다. 농업계 전문 교과서 중 학생 수가 불과 30 명이 안 되는 책도 있었는데 농업 분야의 명맥을 이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어느 한 책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었다.


집필 대표 교수님을 비롯한 다른 집필자에게 도에 지나칠 정도의 주문과 독촉을 하여 불평어린 말씀도 많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일의 진척은 더디고 결재일은 부득부득 닥쳐오고 있어 애가 타다 못해 고혈압과 변비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일선 농업계 고등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보탬이 되어 겨우겨우 결재일을 맞춰 나갈 수가 있었다.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혜를 입고서도 그들을 위해 무언가 보답해 드린 일이 없어 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결재일이 가까울 때 우리는 인근 학교 속직실을 빌려 밤을 새워 가며 내용을 바로 잡고, 또 자구를 수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필자와의 격렬한 토의 끝에 집필 내용을 상당량 바꿀 수가 있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토의를 이끌어 가며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한

책들은 일선 현장에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개중에는 내용 변경을 끝까지 반대하는 집필자도 있어 결과적으로 3~4 책은 결재일을 지키지 못하고 후일로 넘긴 적도 있었다. 집필진과 심의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증거 자료들이 한 보따리씩 풀려지고 책장마다 붉은 줄을 그어 가며 언성을 높일 때에는 교과서 편찬의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혼자 고민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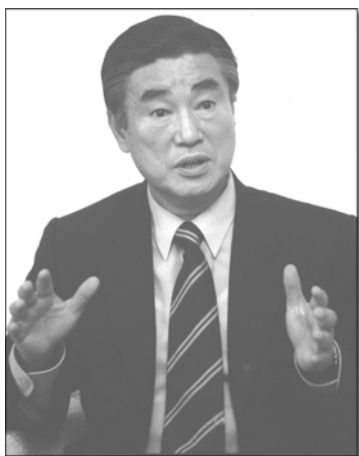
### Ⅲ. 맺는말

질 좋은 농업계 전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도(교육과정이나 집필상의 유의점 등)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잘 읽고 이해해서 만드는 교과서라야 진짜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편수관, 집필자, 심의자, 검토자는 물론, 교과서와 관련된 참여자 모두는 새 시대 교과서관에 대한 안목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라야 하겠으며, 내용 조직뿐만 아니라, 외적 체제나 디자인도 조건이나 기능 향상에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와 실정을 잘 파악해서 그 내용 등을 반영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1993년~1998년 농업 편수관〉

# 이해영

##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단 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1982년 이후 교과서의 생산·발행을 통해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검정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업무 개선을 실천해 온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영 이사장님의 부임으로 협회의 업무 개선은 물론, 경영 합리화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검정 교과서의 공동 생산·공급의 지원 관리와 공동 사업체의 업무 대행 및 운영 감독, 나아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자금 조달과 교과서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될 당시만 해도

검정 교과서는 고등 학교 일부 교과목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국정 도서의 검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양질의 교과서 개발 요구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1. 협회를 설립한 지는 얼마나 되었으며, 설립 당시의 목적과 사회적·교육적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그간의 협회 연혁을 통해 '바람직한 협회 변신'을 시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 우리 협회는 1982년 8월 1일자로 설립되어 올해로 23주년이 됩니다. 협회 설립 이전에는 조합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검정 교과서 발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교과서를 적기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협회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설립 당시의 목

☛ 우리 협회는 과거 교과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미나와 간담회, 지방 순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된 의견들을 교과서 개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계간지인

‘교과서연구’지를 발간하여 일선 학교 및 관계 기관에 배부하는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또, 협회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 교과서 공급권의 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정교과서(주), 대한교과서(주), 교과서연구재단 등 타 기관에 위탁·공급하였으나, 2003학년도부터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 제도로 전환하여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교과서를 국판에서 4×6배판으로, 본문 용지를 미색 갱지에서 중질지와 고급 서적지로, 외형 체제의 변화와 내용, 구성, 편집 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제는 우리의 검정 교과서가 선진국의 교과서와 비교하여도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 3. 협회 정관 제2조(목적)에 “양질의 교과서를 적기에 생산 공급한다.”는 개념에 대해 교육적·경영적 측면에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우리 회원사들은 양질의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담아 내고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를 협회가 적기에 생산·공급하기 위해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각 학교의 주문을 접수하고 집계

하여 매년 8월경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대부분의 공급을 완료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정 변경 등의 수요 계획 변경과 전·출입에 의한 추가 소요분이 발생하면 수시로 추가 주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추가 발행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손실이 큼에도 이를 감수하고 신학기가 되기 전까지 학생 손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학기에 교과서가 없어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국의 중·고등 학교는 약 5천 개로 학생 수는 무려 3백 65만 명에 이르고, 교사 수는 22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교과서를 적기에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이익 추구에만 급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과서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 대금과 인쇄·제본을 위한 생산비, 공급 비용 등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교과서 대금은 나중에 회수하게 되어 수금을 하는데 6~7개월이 소요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 교육청과 고등 학교에서 교과서 대금 납부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차제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4. 현행 교과서의 공급 체제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 제도가 2003학년도부터 도입되면

서 급여제로 운영되어 오던 공급인들을 자영업자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급인들에게 소비자, 즉 학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여, 그 동안 공급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였고, 공급인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공급인들이 학교에 교과서 공급시 사전에 공급 일자와 시간을 협의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반품받는 경우에도 공급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회수하도록 하는 등 교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급 수수료는 정가의 5.88%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 확보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활한 공급 체제 유지를 위해 공급 수수료율의 인상 등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5. 검정 도서의 이익금 분배에 대해 내외적으로 다소 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 협회가 검정 교과서를 발행·공급하면서 판매 이익금을 과목 내 균등 배분하게 된 배경은 교과서 개편으로 인한 학교의 교과서 주문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출판사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사들을 보호하고 질서 있는 유통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출판사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전시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 정가의 균형 유지와 비수익성 교과서의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교과서 출판사들의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전원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차기 교육과정부터는 출판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6. 귀 협회에서 지향하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개념과 육성 지도 방안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교과서 전문 출판사라면 우선, 교과서를 전담할 일정 수준의 편집 인력을 확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교과서의 사후 관리는 물론 향후 개발될 교과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출판을 통해 학교 교육에 공헌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과서 사업에 임하는 관계자들의 사명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판매 수익만으로도 출판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2003 학년도부터 연구·개발비가 신설되었다고는 하지만 한 책당 편집자 한 달 인건비도 안 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출판사들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참고서를 판매하여 얻은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품질을 향상시켜 출판사의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시 축적된 재원과 노하우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익으로 다음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참고서나 부교재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되어 교과서에 재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품질을 향상시켜 출판사의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시 축적된 재원과 노하우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7. 앞으로 교육과정을 수시 개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체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원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과서 체제는 정부 수립 이후 여러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이제는 환경에 무해하고 학생들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봅니다. 그것이 시대 흐름이기도 하고요. 수시 검정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교과서를 어렵게 개발하고 그 사후의 관리가 부족했던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과서에 장인 정

신을 부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상시 검토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중간 점검을 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적 요청과 교육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보다 정교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삼아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8. 현행 교과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과서 출판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제도 개선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국정 도서의 검정화 확대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7차 검정시 출판사들이 부담한 검정 수수료가 자그마치 80억 원에 이르는 점만 보아도 우리의 검정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 검정 수수료의 징수와 적절한 국고 보조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만 몸담고 있던 제가 교과서 출판인의 자세를 말한다는 것은 외람



된 듯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의 교과서가 있게 한 모든 출판인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 귀사의 사업 영역 중 장학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새롭게 구상하시는 사업 영역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❶ 사실 장학 사업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총 363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또, 교과서 전문 편집자를 위한 전문 교육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미나·간담회 개최와 편집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10. 귀 협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교과서 협회상’을 구상하고 계시면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❶ 우리 협회는 사업 목적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정부의 감정을 받은 양질의 교과서를 발행의 합리화를 통해 적기에 생산·공급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펼치는, 즉 수요와 공급에 있어 쌍방이 유기적으로 일치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 가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협회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11. 이사장님께서 ‘미래의 교과서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❶ 이 부분은 제가 협회에 부임한 이래 어떤 교과서가 정말로 좋은 교과서일까?라는 고민과 함께 오랫동안 생각해 온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교수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음반, CD-ROM 등 다양한 형태의 보완 교재 등이 개발·보급되어, 과거 교사와 지식 중심의 비사고형 교과서에서 사고력·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보다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면서, 민간의 자유롭고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지식이 교과서를 통하여 구현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

■ 대담 / 허 강(한국교과서연구재단 초빙연구위원)

# 〈교과서 연구 단체〉

## 게오르그-엑케르트 국제 교과서 연구소

■ 자료 제공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1. 개 요

게오르그-엑케르트(Georg-Eckert) 국제 교과서 연구소<sup>1)</sup>는 역사학자인 게오르그-엑케르트가 1951년에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브라운슈바이크 교육 대학에 설치한 국제 교과서 연구소(internationales schulbuchinstitut)가 연원이다. 즉, 국제 교과서를 연구·개선하는 일에 헌신한 게오르그-엑케르트가 1974년 사망한 후, 니더작센 주 의회에서는 ‘게오르그-엑케르트 국제 교과서 연구소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1975년). 이 연구소는 동 법에 의해 공법상 단체(rechtsfähige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때의 명칭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니더작센 주 이외의 주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당초에는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등 6 개 주에서 지원하였으며, 동 연구소는 그 임무 범위 내에서 다른 여러 주(諸州) 및 독일 연방의 관계 관청과 이들과 관계하는 대학과 협력한다.

### 2. 연구소의 기능

게오르그-엑케르트 국제 교과서 연구소 설치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교과서 연구를 통해 독일 연방 공화국 및 다른 나라 교과서의 역사적·정치적·지리적으로 중요한 기술(記述)을 상호 비교하는 일. 또한 이들을 객관화하기 위해 권고를 제시하는 일
- 교과서의 검증(überprüfung) 및 수정(revision)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일
- 교과서 발행에 있어 저작자, 편집자, 출판사에 조언하는 일
- 감정(gutachten)서를 작성하는 일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일
-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적 경험이나 성과를 책자로 발행하거나 강연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일


---

### 3. 연구 활동

이 곳은 건물과 장서 수, 직원 수를 포함하여 교과서 연구 기관으로는 유럽 최대이다. 처음 설립시 독일의 교과서와 다른 나라의 다양한 교과서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1990년까지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역사와 지리학으로 제한되었다. 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이에 동참하였고, 제3세계 국가와도 이 일을 함께 하였다.

최근에는 교육 수단으로서 교과서 내용의 오류, 이데올로기의 불균형 등에 대해 새로운 목표를 세워 연구하고 있으며, 이런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은 지금도 역사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정기 간행물 형식인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과 게오르그-엑케르트<sup>1)</sup>의 연속 간행물에 소개되고 있으며, 1995년 이후에는 1년에 2회씩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에 newsletter UNESCO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라는 부록을 게재하고 있다. 이 교과서 연구소로부터 나온 메시지는 교과서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와 이외의 다른 정보를 찾는 독자들에게 유용하다.

또, 게오르그-엑케르트 연구소에는 연구원들을 위해 그들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숙박이 가능하다. 보통은 싱글룸이며(공동 취사지와 함께) 방 크기는 통상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 연구소의 대인 담당자는 Farlk Pingel 박사이며, 숙박 관련 담당자는 Ursula Becher 박사이다. (연구소 주소 : celler strasses 3, D-38114 Brannschwelg. 전화 : 4953159099) 

---

1) 『독일의 교과서 제도』. 일본교과서연구센터. 2003. 3, pp. 24~25.

##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저작권법 제 23 조의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적용 기간은 1 년 (2005. 1. 1. ~ 2005. 12. 31.) 으로 함.
- (2) 보상 대상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8429 호) 제 2 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 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 저작권자와 2 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 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 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 (5)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 (6)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만 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 자 원고지 1 매	690 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 편 이상 1 편 이하	7,010 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 편 이상 1/2 편 미만	3,490 원	
		1/4 편 미만	2,100 원	
음악 저작물		1/2 편 이상 1 편 이하	4,510 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 편 이상 1/2 편 미만	2,250 원	
		1/4 편 미만	1,340 원	
미술·사진 저작물		1/2 쪽 이상 1 쪽 이하 크기	6,890 원	
		1/4 쪽 이상 1/2 쪽 미만 크기	3,440 원	
		1/4 쪽 미만 크기	2,060 원	

※ 최저 1만 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 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 보고서 2004-1〉

이 연구는 교사와 학생에게 유용한 교과서의 체제를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어와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고 내적 체제 중심의 이상적인 교과서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내적 체제가 갖추어진 양질의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교과서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과서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노명완 님(연구 책임자), 경인교육대학교 정혜승 님, 이화여자대학교 윤준채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수립 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2004-2〉

이 연구는 교과용 도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용 도서의 개편 체제에 대하여 최근 논의가 시작된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교과서 개편 체제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향 탐색을 통하여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의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기 교과서 개발 정책에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전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소영 님(연구 책임자), 박순경 님, 인하대학교 조미혜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초·중등 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2004-3〉

이 연구는 국정 도서를 검인정화에 따른 교육적 문제점과 재정 부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정 도서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통하여 향후에 도입될 초등 학교 교과서와 중등 학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의 검인정제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검인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초등 학교 교과서와 중등 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의 검인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정부의 교과서 정책 수립 및 교과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님(연구 책임자), 고려대학교 홍후조 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송현정 님,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지현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서 게재 시각 자료의 미적 구성 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2004-4〉

이 연구는 교과서 편찬에 관하여 효용성 높은 ‘좋은 교과서’의 편찬과 교과서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가독성과 조형성이 높은 교과서를 통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각 자료의 그림, 사진 등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게재 시각 자료의 미적 구성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교과서의 종류, 크기, 색도, 게재 방법 등에서 드러난 실태를 파악하여 실증적인 방법에 의한 미적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서에 게재되는 시각 자료에 대하여 출판사 및 편집자·디자이너, 저작자, 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책 입안자에게 기초적인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림성심대학 현영호 님(연구 책임자), 서울여자중학교 김용주 님, (주)금성출판사 조성준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한국 교과서의 현상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2004-5〉

이 연구는 현행 우리 나라 제 현상(現狀), 즉 교과서의 내용, 체제나 품질 및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질적으로 우수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새 교과서상의 수립을 위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서의 이용 상황, 평가 및 교과서 제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새 교과서 편찬 체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교과서 개발의 기획·편집자, 디자이너 등이 공유하고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허 강 님(연구 책임자), 광상만 님, 혜천대학 이종국 님, (주)금성출판사 조성준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2004-6〉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교과서 발행 제도의 다양성 차원에서 자유 발행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도입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자유 발행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확장시키고 앞으로 교과서 제도의 다양화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하며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자유 발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경인교육대학교 박병선 님(연구 책임자), 서울대학교 문용린 님,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소 한명희 님, 경인교육대학교 윤기욱 님, 한국교육개발원 김미숙 님, 영남대학교 김재춘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NEWS

## 연구재단 소식

### ✳ 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200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2004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2004년도 출연금 기본 재산 편입(안)
- 제2호: 200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 제3호: 임원 선임(안)
- 제4호: 임대 사업 추진 현황 보고(안)

○...우리 연구재단은 2005년 2월 25일 오전 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2005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2004년도 결산(안)
- 제2호: 2005년도 교과용 도서 발행사 출연금 배분 보고(안)

### ✳ 2005년도 연구 사업 추진

○...우리 연구재단은 2005년도 연구 과제를 2005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일반 공모를 실시하고, 응모 과제 중에서 과제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5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해당 연구자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6천 5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연구 과제>

- 초등 학교 교과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

안에 관한 연구(김재춘)

- 수학과 수준별 교과서 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정순영)
-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허 강)
- 교과용 도서 학교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신현석)
- 교과용 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유학영)

### ✳ 2005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수증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 중인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로부터 1,593책을 기증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기증에 협조해 주신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대한교과서(주),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향우산업(주)의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 ✳ 2005년도 발행사 출연금 납입

○...우리 연구재단은 2005년도 2월 25일 이사회에서 2005년도 발행사별 출연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납입하도록 하였다.

- 대한교과서(주): 224,800천 원
-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231,950천 원
- (주)두산동아: 15,200천 원
- (주)교학사: 12,600천 원
-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7,400천 원
- (주)지학사: 6,800천 원

— (주)천재교육 : 1,250천 원  
계 : 500,000천 원

✳ 제3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우리 연구재단은 초·중·고등 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과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부각시켜 교과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3회 교과서 관련 수필을 공모·시상'하기로 하였다.

— 응모 기간 : 2005. 4. 11.(월) ~ 6. 30.(목)

— 입상자 발표 : 2005. 10. 11.(화)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과서 전문 연구지

『교과서연구』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보내실 곳 : (우)158-86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 빌딩 4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trf.re.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651-1950으로 편집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초·중·고등 학교 학생이 전학이나 교과서 분실 등의 사유로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발행사 홈 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과목·출판사와 저자(지은이)를 정확히 알아야 구입이 편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교과서 발행사 연락처

구 분	발행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발행 도서 (각 발행사 홈페이지 참조)
검정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02) 3663-5409~12	www.ktbook.com	* 중·고등 학교 검정 도서 전과목
국정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041) 861-3183 (ARS)	www.daehean.com	* 초등 학교 : 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전체 과목(도덕, 사회, 과학, 실과, 예체능) * 중 학 교 : 국어, 생활 국어(1, 2학년) * 고등 학교 : 해양 과학, 공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 15책, 2·1 체제
	(주) 교 학 사	(02) 7075-120	www.kyohak.co.kr	* 초등 학교 : 1~6학년 국어(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 중 학 교 : 국어, 생활 국어(3학년), 국사 *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농업계, 상업계
	(주) 금 성 출 판 사	(02) 2077-8145	www.kseshop.co.kr	* 초등 학교 : 3~6학년 영어(영어 CD, 영어 TAPE 포함) * 중 학 교 : 생활 외국어 * 고등 학교 : 아랍어 I·II, 외국어계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02) 865-8225	www.eduaplus.com	* 중 학 교 : 도덕 3학년 * 고등 학교 : 가사 실업계 16책
	(주) 지 학 사	(02) 330-5302	www.jihak.co.kr	* 중 학 교 : 도덕 1, 2학년 * 고등 학교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생활과 과학, 체육계 3책, 과학계 10책
	(주) 천 재 교 육	(02) 3282-8550	www.chunjae.co.kr	* 초등 학교 : 1~6학년 수학(수학, 수학 익힘책) * 고등 학교 :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체육계 2책, 과학계 5책
	향 우 산 업 (주)	(02) 790-5947		* 고등 학교 교련

## 2 발행사 직매장

구 분	위 치	전화 번호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 빌딩 2층(6호선 망원역 부근)	(02) 3663-9120
대한교과서(주)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본사 1층)(7호선 논현역 부근)	(02) 541-8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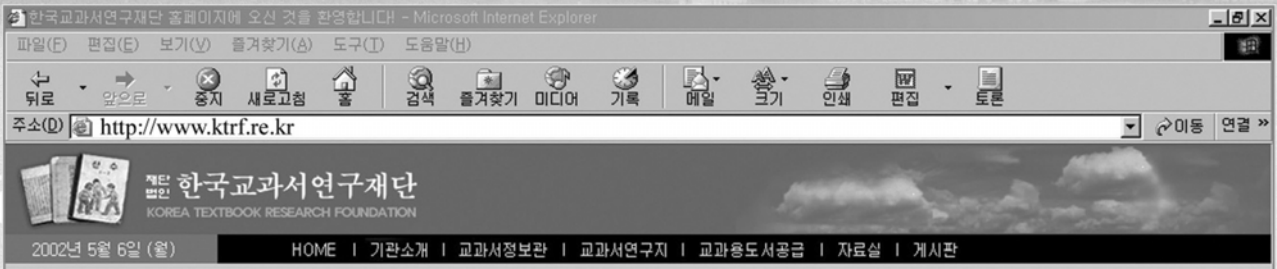
※ 기타 개별 지정 판매 서점·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 및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참고



교과서 정보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운영 개요

- ☐ 우리 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열람 시간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토요일	1~12월	09:00~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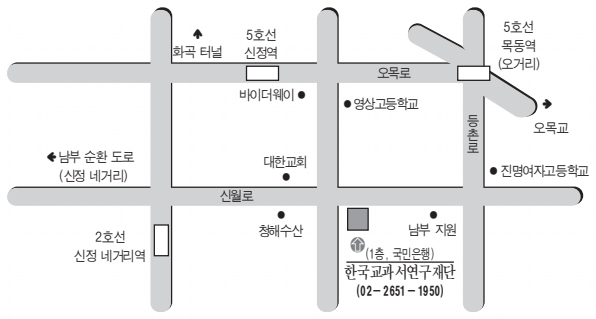
\*공휴일 휴관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2,523	5,311	27,834
일반 자료	2,231	—	2,231
계	24,754	5,311	30,065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 교통편



- 전철 : 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 : 5622, 5712, 602, 603, 640, 5630, 6614 번